

2022-01

협력연구

# 지역별 공연시장 규모, 특성과 성장 가능성

Performing Arts Market by Regions  
in South Korea: Size, Characteristics,  
and Growth Potential

김형종  
이상규  
윤수영  
정인혜  
이다운



# 지역별 공연시장 규모, 특성과 성장 가능성

Performing Arts Market by Regions in South Korea:  
Size, Characteristics, and Growth Potential

김형종·이상규·윤수영·정인혜·이다운



## 연구책임

---

김형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차석전문원

## 공동연구

---

윤수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정인혜 예술경영지원센터 팀장

이다운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임



지역별 공연시장 규모, 특성과 성장 가능성



## 연구개요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 연구배경

- 2006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설립 이후로 우리나라의 공연예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최근 들어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공연예술 시장에 대한 계량적 분석 연구의 필요성은 점점증하는 상황임

### 2) 연구목적

- 첫째, 예술경영지원센터 설립 이후로 우리나라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을 조감함
- 둘째,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을 조감함
- 셋째,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을 계량적 기법으로 분석함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2014년부터 운영되어왔으나, 공연법에 의한 강제성이 부여된 시기는 2019년 중순부터로 그 이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창궐하기 바로 직전어야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 분석하기에는 시계열 정보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데이터에서 추출한 소비 지출 정보를 사용하여 지역 공연시장의 성장성을 분석할 계획

## 1.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연구로 기획되었으며, 보고서의 작성 역시 전반부(2장)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후반부(3장~4장)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작성함
- 제2장은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 추이 및 현황을

다루었으며 현재시점은 2022년 10월을 의미함

- 제3장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원시자료를 가공하여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의 규모 및 장르 특성을 분석함
- 제4장은 신한카드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에 대해 계량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함

## 2. 우리나라 전체 공연 시장의 추이

### 2.1 공연예술 시장의 추이

#### 1) 전체 공연예술 시장 추이

- 2010년부터 공연시장은 약 3,000억원대 규모로 추정 및 유지되어 왔으나 2020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공연시장 규모에 큰 변화가 발생함
  - `22년에 접어들면서는 약 4,213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티켓판매액을 달성하였으며, 약 10년간 3,000억원대로 유지되어 오던 공연시장이 4,000억원을 돌파함
- 본격 공연시장에 변화가 발생한 `20년 1월부터 `22년 10월까지의 월별 티켓판매액 변화를 살펴보면, `21년 2월을 기점으로 우상향되는 양상이 나타남

#### 2) 장르별 공연예술 시장 추이

##### ① 연도별추이

- `20년~`22년 장르별 공연실적 변화를 살펴보면 공급측면인 공연건수는 `20년 대비 `21년 전 장르에서 증가하였으나, `22년에는 클래식과 무용 장르가 전년 대비 하락함
- 반면, 수요 측면인 티켓판매수 및 티켓판매액에서는 전 장르에서 `20~22년간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임

## ② 월별추이

- `20년부터 `22년 10월까지의 월별 티켓판매금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20년에 급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1년에 접어들면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이룸
  -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20년에 가장 큰 변화폭을 보인 장르는 국악과 무용, 클래식 장르이며 특히 3~4월과 9월에 급감하는 양상을 보임. 반면, 뮤지컬과 연극 장르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감폭이 크지 않음
  - `22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으나, 오직 무용 장르만이 1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3월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 3) 규모별 공연예술 시장 추이

- `20년부터 `22년까지 전 규모 공연장 공연실적이 증가하였으며, `20년 대비 `21년 1,0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 실적이 가장 크게 증가함

## 4)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 추이

- 공연수요가 가장 많은 주요 지역 4곳의 `20~`22년 공연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20년부터 `21년까지 상승하던 전 지역 공연건수가 `22년에 들어서며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3%, 4% 소폭 하락하였으며, 티켓판매수와 티켓판매액은 전 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음

## 2.2 공연예술 시장의 현황

### 1) 공연시장 분석

#### ① 분석데이터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서 추출한 티켓예매데이터(`22년 11월 8일 기준)를 바탕으로 2022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공연일자 기준)까지 집계된 공연건수, 티켓판매 수, 티켓판매액을 분석함

## ② 분석기준

- 공연시장 규모는 공연건수와 티켓판매 수, 티켓판매액 현황을 장르별, 규모별, 지역별, 특성별로 분석함

## 2) 공연예술 시장 현황

### ① 2022년 공연시장 현황

- 2022년 공연시장에서 클래식이 5,366건으로 가장 많은 공연이 이뤄졌고, 무용이 573건으로 가장 적게 공연된 것으로 나타남

### ② 장르별 공연시장 현황

- 공연시장에서 가장 많은 티켓이 판매된 장르는 뮤지컬로 약 581만 매가 판매되었고, 티켓판매액도 뮤지컬이 약 3,262억 원으로 가장 많았음
  - 공연수요는 뮤지컬 > 연극 > 클래식 > 무용 > 국악 순이었고, 뮤지컬이 전체 공연시장 관객의 과반수 이상인 56%나 차지함
  - 전체 공연시장에서 뮤지컬의 티켓판매액이 78%를 차지하였고, 클래식과 연극이 각각 11%와 8%를 차지함

### ③ 규모별 공연시장 현황

- 2022년 500-1,000석 미만의 공연장에서 가장 많은 공연인 2,833건이 이루어졌고, 300-500석 미만에서 2,648건이 이루어져 중규모 극장에서 많은 공연 수요가 있음을 나타냄
- 공연수요가 가장 높은 공연장은 1,0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약 442만 매의 티켓이 판매되어 전체 공연시장의 42.1%를 차지하였고, 100-300석 미만 공연장이 약 230만 매가 판매되어 그 뒤를 이음

### ④ 지역별 공연시장 현황

- 전국에서 공연의 공급과 수요, 매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공연건수 44.0%,

공연수요 67.3%, 티켓판매액 75.8%를 차지함

- 광역시 단위로 서울 다음으로 공연건수와 티켓판매수가 많은 대구의 공연건수는 전체 공연시장의 약 6.9%였고, 티켓판매수는 약 4.3%를 차지함

#### ⑤ 특성별 공연시장 현황

- 2022년 공연시장에서 아동공연은 총 2,318건으로 전체 공연의 약 18.2%를 차지하였고, 티켓판매는 23.1%나 차지함
- 2022년 내한공연은 총 206건으로 전체공연시장의 약 1.6%밖에 되지 않지만, 티켓판매액은 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축제는 총 1,211건이 공연되어 전체 공연시장 내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티켓판매수와 티켓판매액은 각각 공연시장의 3.9%와 1.6%를 차지함

## 3.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의 규모 및 특성

### 3.1 지역별 시장의 규모

#### 1) 지역별 공연티켓 판매현황 및 추이

-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전체 티켓판매수는 약 375만 여건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약 253만여 건으로 가장 많은 티켓판매수를 보였으며, 대구가 약 15만여건, 경기도가 약 34만여건으로 나타남
- 2022년 3분기 티켓판매매출액은 약 1,41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2분기 전체 공연티켓 매출액은 약 755억 원으로, 이후에 공연매출액이 회복세를 보임
- 공연티켓 판매수와 매출액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공연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공연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3.2 지역별 시장의 장르 특성

### 1) 지역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현황과 추이

- (서울)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는 뮤지컬이 약 1585.4만 건으로 가장 많은 티켓 판매수를 보인 장르였으며, 연극 약 701.6만 건, 클래식 약 337.8만 건, 무용 약 73.7만건 등으로 나타남
- 공연티켓 매출액은 뮤지컬이 약 5,51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보인 장르였으며, 연극 약 645억 원, 클래식 약 522억 원, 무용 약 137억 원 등으로 나타남
- 서울지역은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이 공연시장 주요 장르였으며, 복합공연, 국악이 가장 어려운 장르로 나타남
- (경기도)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는 뮤지컬이 약 203만 건으로 가장 많은 티켓 판매수를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89.3만 건, 연극 약 31.1만 건, 무용 약 18.6만 건 등으로 나타남
- 매출액 기준으로 경기지역은 뮤지컬이 약 366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104억 원, 연극 약 22.5억 원 등으로 나타남
- 경기지역은 뮤지컬, 다음으로 클래식이 공연시장 주요 장르로 나타났으며, 복합공연, 국악이 가장 어려운 장르로 나타남
- (강원도)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는 뮤지컬이 약 17.5만 건으로 가장 많은 티켓 판매수를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13.5만 건, 연극 약 4.1만 건, 무용 약 2.3만 건 등으로 나타남
- 매출액 기준으로 강원지역은 뮤지컬이 약 213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133.8억 원, 연극 약 35.7억 원 등으로 나타남
- 강원지역은 서울, 경기, 경상도를 제외하면 타 지역에 비해 축제공연 티켓 판매수와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청도)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는 뮤지컬이 약 67.5만 건으로 가장 많은 공연티켓 판매수를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27.3만 건, 연극 약 16.2만 건, 무용 약 7.8만 건 등으로 나타남

- 매출액 기준으로 충청지역은 뮤지컬이 약 149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35.4억 원, 연극 약 15억 원 등으로 나타남
- 충청지역은 뮤지컬, 다음으로 클래식이 공연시장 주요 장르로 나타났으며, 복합공연, 국악, 오페라가 가장 어려운 장르로 나타남
- (경상도)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는 뮤지컬이 약 242.8만 건으로 가장 많은 공연티켓 판매수를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113만 건, 연극 약 72.7만 건, 무용 약 22.6만 건 등으로 나타남
- 매출액 기준으로 경상도 지역은 뮤지컬이 약 737.8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142.4억 원, 연극 약 65.1억 원 등으로 나타남
- 경상도 지역은 뮤지컬, 다음으로 클래식이 공연시장 주요 장르로 나타났으며, 복합공연, 오페라 공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회복속도도 빠르고 비중이 높은 장르임
- (전라도)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는 뮤지컬이 약 52.2만 건으로 가장 많은 공연티켓 판매수를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26.1만 건, 연극 약 19.7만 건, 국악 약 10.5만 건 등으로 나타남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을 살펴보면 뮤지컬이 약 111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30.9억 원, 연극 약 19.1억 원, 무용 약 8.2억 원, 국악 5.3억 원 등으로 나타남
- 전라도 지역은 뮤지컬, 클래식, 연극이 주요 장르로 나타났으며, 국악, 무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회복속도도 빠르고 비중이 높은 장르임
- (제주도)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는 뮤지컬이 약 22.5만 건으로 가장 많은 공연티켓 판매수를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4.2만 건, 연극 약 2.8만 건, 무용 약 1.8만 건 등으로 나타남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은 뮤지컬이 약 22.5만 건으로 가장 많은 공연티켓 판매수를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4.2만 건, 연극 약 2.8만 건, 무용 약 1.8만 건 등으로 나타남
- 제주도 지역은 뮤지컬이 주요 장르로 나타났으며, 다른 장르의 공연은 매출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4. 지역 공연시장의 성장 가능성

### 4.1 실증분석모형

#### 1) 분석의 필요성 및 모형설정

- 공연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및 장르에 그러한 성과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움
- 우리나라 공연시장이 규모의 측면에서 지역별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역의 공연시장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 또한 지역과 서울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지와 같은 주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본 장에서는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 및 격차의 감소를 분석하였으며,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은 동태적 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l)로 분석
  -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 편차 감소는 변동 계수, 지니 계수 등으로 분석할 수 있음

### 4.2 실증분석 결과

#### 1) 데이터 설명

- 실증분석을 위해 신한카드사의 카드 매출전표 데이터를 시군구 수준에서 집계하여 가공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함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공연장 소비지출이지만, 비교를 위해서 (영화)극장 소비지출도 일부 포함하여 분석함
- 극장 및 공연장 일 소비지출금액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극장 소비지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공연장 소비지출은 상



당한 수준의 감소까지는 아니지만 성장 추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서울 강남구의 공연장 소비지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보다 늘어난 반면에, 부산, 대구는 이외는 다른 추세를 보인다는 점도 기술할만함

## 2) 소비지출 성장

- 분석결과와는 과거 소비지출과의 관련성은 공연장이 더 높지만 소비지출의 계절성 역시 공연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전에는 과거의 공연예술 소비지출에 비례하는 수준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음
-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전후로 공연예술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현재의 공연예술 시장상황은 코로나19 이전과 상이함을 시사하고 있음

## 3) 소비지출 성장: 지역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을 전후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비대도시권 지역에서 지속적이지 못한 공연예술 소비지출이 일어나고 있음
-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의 소비지출 성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며, 이는 서울과 비서울 지역만이 아니라 각 지역 내에서도 공연 시설 및 작품 등에서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음

## 4)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

- 우리나라의 지역별 공연예술 소비지출 편차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에는 빠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음
- 그러나 이러한 공연예술 소비지출 편차의 감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로는 관찰하기 어려우며 최근 들어서는 소비지출 편차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음

- 제시된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소비지출 성장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전후로 공연예술 시장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결과는 공연예술 소비지출이 과거와는 다른 경로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연예술 소비지출이 앞으로 상이한 형태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함

## 5. 결론

### 5.1 결과요약 및 시사점

- (공연예술 시장 추이) 2010년부터는 공연시장의 티켓 판매규모가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발 직전인 2019년에는 티켓 판매액이 약 3,900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또한 2022년의 티켓 판매액은 이미 10월 시점에서 약 4,213억원에 달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과거와 비교하여 1,0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다만 공연예술 판매액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며, 이는 티켓 가격이 높은 유료 공연예술의 대다수가 서울에서 공연함에 기인
- 2022년 기준으로 내한공연 건수는 전체 공연시장의 약 1.6%에 불과하지만 판매액으로는 8.5%를 차지하며, 반면에 축제에서 총 1,211건이 공연되어 전체에서 9.5%를 차지하고 있으나 티켓 판매액은 전체의 1.6% 수준임
- (지역 공연예술 시장 특성)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전체 티켓판매수는 약 375만 여건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약 253만여 건으로 가장 많은 티켓판매수를 보였으며, 대구가 약 15만여건, 경기도가 약 34만여건으로 나타남
- 분석기간 동안 서울 지역은 우리나라 공연 티켓판매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연예술 시장의 주요 공연 장르는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상 지역에서 복합장르 및 오페라 장르의 공연티켓 예매건수나 매출액이 높게 나타났고, 전라 지역은 국악, 무용 장르의 공연티켓 예매건수가 높게 나타남
- 강원도 지역은 축제공연 예매건수나 매출액이 다른 장르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 축제와 관련한 공연예술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지역공연시장의 성장가능성) 분석기간 전체적으로는 공연예술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로 공연예술 소비지출 성장이 둔화되었음
  - 특히 서울 지역 보다는 비서울 지역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공연예술 소비지출의 편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 지역별 소비지출 회복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반대로 영화의 경우는 지역별 소비지출 편차가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화 소비지출의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편차도 감소하는 현상으로 보임
- 비서울 지역의 공연예술 소비지출은 서울 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로는 비서울 지역의 서울 따라잡기 효과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과거에는 높은 성장을 보여주었던 비서울 지역의 공연예술 시장은 현재 성장성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로 보이며 과거와 같은 수준의 성장으로 회귀할지는 불분명함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역대 최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에 관찰되던 결과와는 달리, 시장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별 소비지출의 불평등 증가가 관찰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공연예술 시장을 육성하고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격차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임
- 다만, 본 분석에서는 공연예술 소비가 아니라 소비지출을 사용하여 무료 공연이 많은 비서울 지역에서의 공연예술 소비를 과소 측정하였을 개연성도 있음



---

# 목차

<b>제1장 서론</b>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구성	5
<b>제2장 우리나라 전체 공연 시장의 추이</b> .....	7
제1절 공연예술 시장의 추이	9
제2절 공연예술 시장의 현황	15
<b>제3장 지역별 공연 시장의 규모 및 장르 특성</b> .....	21
제1절 지역별 시장의 규모	23
제2절 지역별 시장의 장르 특성	28
<b>제4장 지역 공연 시장의 성장 가능성</b> .....	57
제1절 실증분석 모형	59
제2절 실증분석 결과	62
<b>제5장 결론</b> .....	79
<b>참고문헌</b> / 85	
<b>ABSTRACT</b> / 87	

---

# 표 목차

〈표 2-1〉 연도별 공연시장 매출액	9
〈표 2-2〉 공연시장의 성장 추이	10
〈표 2-3〉 3개년 간 장르별 공연실적	11
〈표 2-4〉 공연장 규모별 공연예술 실적 추이	13
〈표 2-5〉 지역별 공연예술 실적 추이	14
〈표 2-6〉 2022년 공연예술 시장 현황	16
〈표 2-7〉 2022년 장르별 공연시장 현황	17
〈표 2-8〉 2022년 공연장 규모별 공연시장 현황	18
〈표 2-9〉 2022년 지역별 공연시장 현황	19
〈표 2-10〉 2022년 특성별 공연시장 현황	20
〈표 3-1〉 지역별 공연 티켓판매수	24
〈표 3-2〉 지역별 공연티켓 매출액 추이	26
〈표 3-3〉 서울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	29
〈표 3-4〉 서울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	30
〈표 3-5〉 경기도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	31
〈표 3-6〉 경기도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	33
〈표 3-7〉 강원도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	34
〈표 3-8〉 강원도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	35
〈표 3-9〉 지역별 축제공연 티켓 판매수	36
〈표 3-10〉 지역별 축제공연 티켓 매출액	37
〈표 3-11〉 충청도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	39
〈표 3-12〉 충청도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	40
〈표 3-13〉 경상도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	42
〈표 3-14〉 경상도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	43
〈표 3-15〉 지역별 복합공연 티켓 판매수	44
〈표 3-16〉 지역별 복합공연 티켓 매출액	45
〈표 3-17〉 2019~2022년 지역별 오페라공연 티켓 판매수	46

〈표 3-18〉 2019~2022년 지역별 오페라공연 티켓 매출액	47
〈표 3-19〉 전라도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	48
〈표 3-20〉 전라도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	50
〈표 3-21〉 지역별 국악공연 티켓 판매수	51
〈표 3-22〉 지역별 무용공연 장르 티켓 판매수	52
〈표 3-23〉 제주도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	53
〈표 3-24〉 제주도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	55
〈표 4-1〉 기술 통계량	63
〈표 4-2〉 소비지출 성장: 전체기간 (종속변수: $\log(c_{jst})$ )	67
〈표 4-3〉 소비지출 성장: 2020년 이전 (종속변수: $\log(c_{jst})$ )	68
〈표 4-4〉 소비지출 성장: 2021년 이후종속변수:	68
〈표 4-5〉 지역별 소비지출 성장: 전체기간	71
〈표 4-6〉 지역별 소비지출 성장: 2020년 이전	72
〈표 4-7〉 지역별 소비지출 성장: 2021년 이후	73

---

# 그림 목차

[그림 2-1] 2020년~2022년 월별 티켓판매액 추이	11
[그림 2-2] 3개년 간 장르별 공연건수 및 티켓판매액 추이	12
[그림 2-3] 3개년 간 장르별 월별 티켓판매액 추이	12
[그림 2-4] 지역별 티켓판매액 분포	14
[그림 2-5] '20~22년 지역별 티켓판매액 추이	14
[그림 2-6] 2022년 장르별 공연건수 및 티켓판매수 비율	17
[그림 2-7] 2022년 규모별 공연건수 및 티켓판매액 비율	18
[그림 3-1] 지역별 공연 티켓판매수	25
[그림 3-2] 지역별 공연티켓 매출액	27
[그림 3-3] 2019년 9월 ~2022년 9월 서울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	29
[그림 3-4] 2019년 9월 ~2022년 9월 서울 장르별 공연티켓 총 매출액	30
[그림 3-5] 2019년 9월 ~2022년 9월 경기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	32
[그림 3-6] 2019년 9월 ~2022년 9월 경기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매출액	33
[그림 3-7] 2019년 9월 ~ 2022년 9월 강원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	34
[그림 3-8] 2019년 9월 ~ 2022년 9월 강원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매출액	36
[그림 3-9] 지역별 축제공연 티켓 판매수	37
[그림 3-10] 지역별 축제공연 티켓 매출액	38
[그림 3-11] 2019년 9월 ~ 2022년 9월 충청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	39
[그림 3-12] 2019년 9월 ~ 2022년 9월 충청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매출액	41
[그림 3-13] 2019년 9월 ~ 2022년 9월 경상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	42
[그림 3-14] 2019년 9월 ~ 2022년 9월 경상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매출액	43
[그림 3-15] 지역별 복합공연 티켓 판매수(서울, 경기도, 경상도)	44
[그림 3-16] 지역별 복합공연 티켓 매출액 추이	45
[그림 3-17] 2019~2022년 지역별 오페라공연 티켓 판매수	46
[그림 3-18] 2019~2022년 지역별 오페라공연 티켓 매출액	47
[그림 3-19] 2019년 9월 ~ 2022년 9월 전라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	49
[그림 3-20] 2019년 9월 ~ 2022년 9월 전라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매출액	50



[그림 3-21] 지역별 국악공연 티켓 판매수	51
[그림 3-22] 2019~2022년 지역별 무용공연 티켓 판매수	52
[그림 3-23] 2019년 9월 ~ 2022년 9월 제주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	54
[그림 3-24] 2019년 9월 ~ 2022년 9월 제주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매출액	55
[그림 4-1] 로그 공연 카드지출과 로그 코피스 매출의 관계	63
[그림 4-2] 서울 강남구 극장	64
[그림 4-3] 서울 강남구 공연장	65
[그림 4-4] 부산 남구 극장	65
[그림 4-5] 부산 남구 공연장	66
[그림 4-6] 대구 중구 극장	66
[그림 4-7] 소비지출 성장의 비교: 2018-2019년(좌측) 대비 2021-2022년(우측)	69
[그림 4-8]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 극장	75
[그림 4-9]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 공연장	75
[그림 4-10]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 2020년 이전 극장	76
[그림 4-11]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 2020년 이전, 공연장	76
[그림 4-12]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 2021년 이후, 극장	77
[그림 4-13]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 2021년 이후, 공연장	77



지역별 공연시장 규모, 특성과 성장 가능성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2006년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설립 이후로 우리나라의 공연예술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여 왔음
- 최근 들어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공연예술 시장에 대한 계량적 분석 연구의 필요성은 점증하는 상황임
- 시의 적절하게도 2019년부터 공연법 제4조에 의거하여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연시장을 조감할 수 있는 원천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음
-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22년 1월 공연예술 및 관련 문화예술의 분석과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본 연구는 업무협약 이후로 양 기관이 공연예술 시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첫 시도임
  - 이를 위해 기획 초기부터 공동으로 인력과 자본을 출자하여 수행하는 협력연구의 형태로 연구를 추진하였음
- 본 협력연구의 목적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여 기술할 수 있음
- 첫째, 예술경영지원센터 설립 이후로 우리나라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을 조감함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본격적인 가동 이전에는 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추론하여 공연예술 시장 모수의 값을 추정하였음
  - 따라서 과거의 수치들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본격 가동 이후와 비교하여 추정 값의 오차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을 조감함
  - 크게 지역별 공연시장의 규모와 선호 장르를 분석함
- 셋째,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을 계량적 기법으로 분석함
  -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은 2014년부터 운영되어왔으나, 공연법에 의한 강제성이 부여된 시기는 2019년 중순부터로 그 이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창궐하기 바로 직전야 본격적인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 분석하기에는 시계열 정보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신용카드 데이터에서 추출한 소비 지출 정보를 사용하여 지역 공연시장의 성장성을 분석할 계획

## 제2절 연구의 구성

---

- 이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연구로 기획되었음
- 따라서 보고서의 작성 역시 전반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후반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작성하였음
  - 서론과 결론을 제외한 보고서 본문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제2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제3장 및 제4장을 주로 작성하였음
  - 또한 보고서의 내용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및 관련된 데이터의 분석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음
  - 이는 양 기관 협력연구의 주된 목적이 데이터에 기반 한 공연시장 분석에 있기 때문임
- 보고서의 전체 구성을 이하에서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음
- 제2장은 현재 시점(2022년 10월)에서 우리나라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 추이 및 현황을 다룸
- 제3장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원시자료를 가공하여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의 규모 및 장르 특성을 분석함
- 제4장은 신한카드사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에 대해 계량경제학적인 방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함





지역별 공연시장 규모, 특성과 성장 가능성

제2장

## 우리나라 전체 공연 시장의 추이



# 제1절 공연예술 시장의 추이

## 1. 전체 공연예술 시장 추이

### 가. 연도별 추이

- `19년도 이전까지의 연도별 공연시장 매출액 추이를 공연예술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1)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해당 기간 중 공연예술 시장 규모는 큰 변동 없이 이어져왔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17년의 8.7% 상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이 5% 이내의 변동으로,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횡보하는 추세임

〈표 2-1〉 연도별 공연시장 매출액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액(백만 원)	759,315	781,491	747,990	813,218	823,254	852,985
전년대비(%)		2.9	-4.29	8.72	1.23	3.61

※ 해당 자료는 티켓 판매액, 작품판매수입, 공연출연료, 공연장대관수입, 기타 공연사업 수입, 공연이외 사업수입, 기타 수입 등을 합산한 공연시장 전체 매출액에 관한 추정치임

- 이처럼, 시장 변화가 크지 않은 공연예술계에 2020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례적 변화가 야기됨.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기준, `19년 티켓판매액 추정액은<sup>1)</sup> 약 3,900억원이었으나, `20년에 진입하며 약 1,721억원으로 45.8% 급감함
  - `21년에는 약 3,07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78.4% 증가하며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듯 하였으나,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19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였음

1)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 의무수집에 대한 근거인 공연법 개정이 2019.6.25.에 이뤄져 이전 데이터는 추정치로 대체함

- 반면, '22년에 접어들면서는 약 4,213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티켓판매액을 달성하였고, 약 10년간 유지되어왔던 3,000억원대 공연시장을 한순간에 4,000억원대로 바꿔놓았음
- 아울러, 해당 수치는 아직 올해가 종결되지 않은 현 시점의(1~10월) 티켓판매액으로 이미 '19년 전체 추정값보다 약 8.1% 높은 수치임
- 따라서 공연 성수기인 연말까지 실적을 고려하면 4,000억원 이상의 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표 2-2〉 공연시장의 성장 추이

구분	2019년 (추정치)	2020년	2021년	2022년 (1~10월)
공연건수		5,038	10,629	11,122
티켓예매수		4,166,805	7,105,547	10,493,880
티켓판매액	389,660백만원	172,066백만원	306,973백만원	421,302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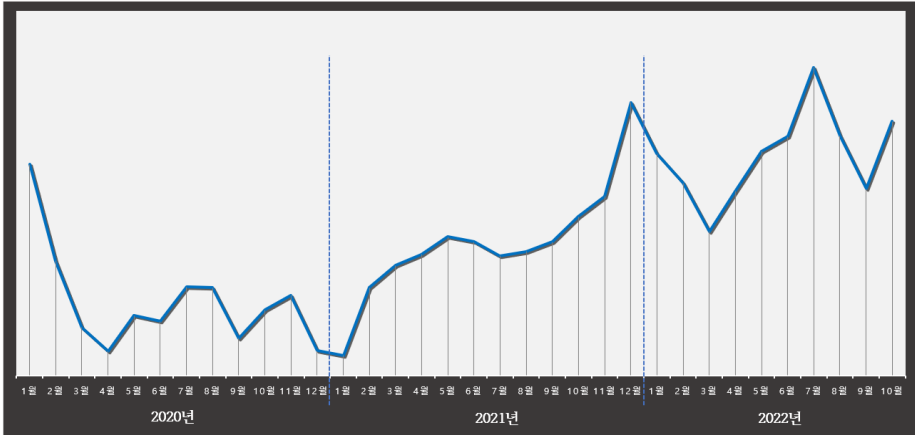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데이터는, 매일 단위로 수집 및 집계되므로 추출시점에 따라 값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데이터 추출일자 : 2022.11.08.)

※ 공연건수는 공연예술시장에서의 공급량을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되며, 티켓예매수와 티켓판매액은 수요량에 대한 판단 척도로 활용됨

## 나. 월별 추이

- 본격 공연시장에 변화가 발생한 '20년 1월부터 '22년 10월까지의 월별 티켓판매액 변화를 살펴보면, '21년 2월을 기점으로 우상향되는 양상을 볼 수 있음
  -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시점은 '20년 1월 20일로, 1월 티켓판매액에 큰 타격은 없었으나, 당해 연도 2월부터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이후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치를 지속함
  - 반면, '21년에 진입하면서 2월을 기점으로 점진적 증가 추이를 보였으며, '22년에 접어들며 증감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20~21년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그림 2-1] 2020년~2022년 월별 티켓판매액 추이



## 2. 장르별 공연예술 시장 추이

### 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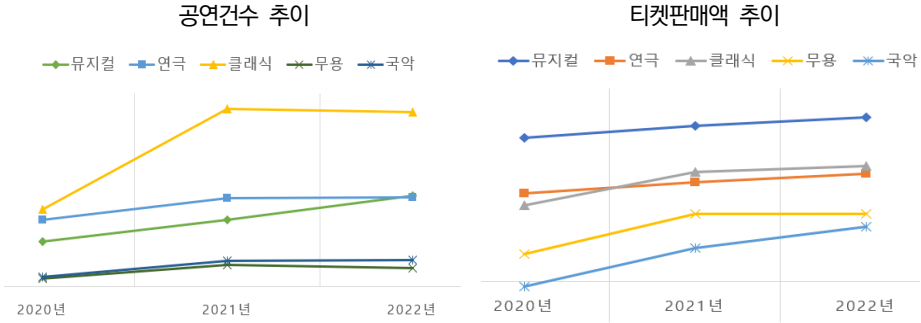
- `20년~`22년 장르별 공연실적 변화를 살펴보면 장르별로 증감 추이에 편차가 존재하였음
  - 공급측면인 공연건수는 `20년 대비 `21년 전 장르에서 증가하였으나, `22년에는 클래식과 무용 장르에서 전년 대비 하락함
  - 반면 수요 측면인 티켓판매수 및 티켓판매액에서는 전 장르에서 `20~`22년간 모두 지속 증가 추이를 보임

〈표 2-3〉 3개년 간 장르별 공연실적

장르	2020년			2021년			2022년(1~10월)		
	공연건수 (건)	티켓판매수 (매)	티켓판매액 (백만원)	공연건수 (건)	티켓판매수 (매)	티켓판매액 (백만원)	공연건수 (건)	티켓판매수 (매)	티켓판매액 (백만원)
뮤지컬	827	2,505,112	143,517	1,533	3,793,571	234,367	2,153	5,809,507	326,167
연극	1,239	976,195	16,172	1,961	1,481,571	25,187	2,023	2,191,157	34,920
클래식	2,325	541,980	10,089	5,457	1,339,010	37,698	5,366	1,827,982	47,595
무용	240	67,687	1,492	659	289,534	7,110	573	315,801	7,096
국악	272	48,471	414	757	138,342	1,857	761	251,409	4,264

※ 장르별 값에는 복합 장르가 제외되어 있어 전체 총계값과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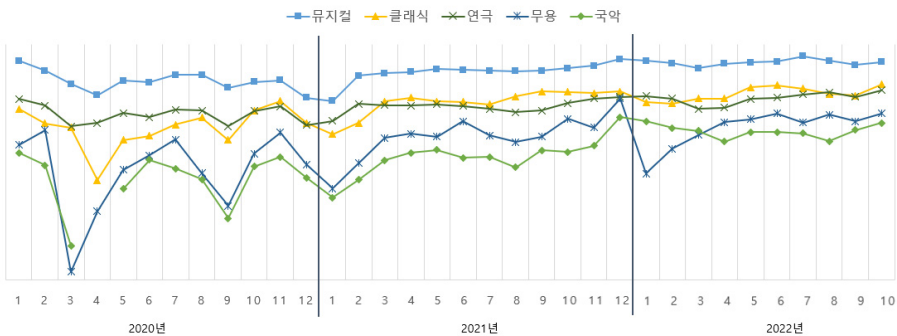
[그림 2-2] 3개년 간 장르별 공연건수 및 티켓판매액 추이



### 나. 월별 추이

- '20년부터 '22년 10월까지의 월별 티켓판매액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20년에 급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21년에 접어들면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이룸
  -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20년에 가장 큰 변화폭을 보인 장르는 국악과 무용, 클래식 장르이며 특히 3~4월과 9월에 급감하는 양상을 보임. 반면, 뮤지컬과 연극 장르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증감폭을 보임
  - '22년에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으나, 오직 무용 장르만이 1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며, 3월을 기점으로 이내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임

[그림 2-3] 3개년 간 장르별 월별 티켓판매액 추이



### 3. 규모별 공연예술 시장 추이

- `20년부터 `22년까지 전 규모에서 공연장 공연실적이 공히 증가함
  - 특히 `20년 대비 `21년 1,0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 실적이 가장 크게 증가함
  - `22년에도 공연실적 추이는 지속 상승곡선을 이뤘으며, `21년 수준의 큰 증가폭은 아니었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표 2-4〉 공연장 규모별 공연예술 실적 추이

년도	공연장 규모	공연건수	티켓판매 수	티켓판매액(백만원)
2020년	100석 미만	625	60,420	767
	100-300석 미만	1,474	1,005,348	15,987
	300-500석 미만	1,157	831,341	24,278
	500-1,000석 미만	1,052	645,974	16,762
	1,000석 이상	730	1,623,722	114,273
2021년	100석 미만	894	101,812	1,563
	100-300석 미만	2,594	1,422,623	21,939
	300-500석 미만	2,513	1,161,771	32,670
	500-1,000석 미만	2,727	1,214,534	28,711
	1,000석 이상	1,901	3,204,807	222,091
2022년	100석 미만	1,005	174,847	2,588
	100-300석 미만	2,598	2,299,231	36,582
	300-500석 미만	2,648	1,607,381	40,574
	500-1,000석 미만	2,833	1,991,993	49,919
	1,000석 이상	2,038	4,420,428	291,640

공연장 규모	20년 대비 21년 증감율			21년 대비 22년 증감율		
	공연건수	티켓판매수	티켓판매액	공연건수	티켓판매수	티켓판매액
100석 미만	+43%	+69%	+104%	+12%	+72%	+66%
100-300석 미만	+76%	+42%	+37%	0%	+62%	+67%
300-500석 미만	+117%	+40%	+35%	+5%	+38%	+24%
500-1,000석 미만	+159%	+88%	+71%	+4%	+64%	+74%
1,000석 이상	+160%	+97%	+94%	+7%	+38%	+31%

## 4.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 추이

- 공연수요가 가장 많은 주요 지역 4곳의 `20~22년 공연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20년부터 `21년까지 상승하던 전 지역 공연건수가 `22년에 들어서며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3%, 4% 소폭 하락하였으며, 티켓판매수와 티켓판매액은 전 지역에서 꾸준히 증가하였음
  - `21년 공연시장 규모 성장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 지역은 경기 지역으로 `20년 대비 약 487% 증가함
  - `22년 또한 전년대비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인 지역은 경기 지역이었으나 `20년 대비 상승률에 비해서는 저조한 증가폭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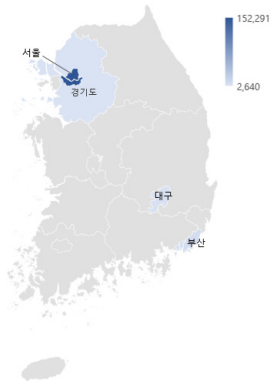
(표 2-5) 지역별 공연예술 실적 추이

지역	2020년			2021년			2022년(1~10월)		
	공연건수 (건)	티켓판매수 (매)	티켓판매액 (백만원)	공연건수 (건)	티켓판매수 (매)	티켓판매액 (백만원)	공연건수 (건)	티켓판매수 (매)	티켓판매액 (백만원)
서울	2,807	3,503,276	152,291	5,040	5,055,753	245,957	4,894	7,057,755	319,426
경기	383	122,238	2,640	1,222	551,315	15,505	1,580	960,217	25,447
부산	307	146,544	8,225	659	314,724	16,299	673	428,483	23,071
대구	345	99,142	3,336	808	311,717	8,673	772	451,770	11,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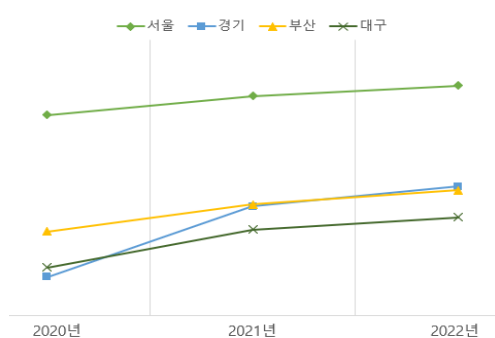
※ 해당 표는 공연수요가 가장 많은 주요 지역 공연실적만을 표기하고 있어 전체 총계값과 상이할 수 있음

공연장 규모	20년 대비 21년 증감률(%)			21년 대비 22년 증감률(%)		
	공연건수	티켓판매수	티켓판매액	공연건수	티켓판매수	티켓판매액
서울	+80%	+44%	+62%	-3%	+40%	+30%
경기	+219%	+351%	+487%	+29%	+74%	+64%
부산	+115%	+115%	+98%	+2%	+36%	+42%
대구	+134%	+214%	+160%	-4%	+45%	+35%

[그림 2-4] 지역별 티켓판매액 분포



[그림 2-5] `20~22년 지역별 티켓판매액 추이





## 제2절 공연예술 시장의 현황

---

### 1. 공연시장 분석

#### 가. 분석 데이터

-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은 공연통계를 통해 공연건수, 개막편수, 상연횟수, 티켓판매수, 티켓판매액에 대한 정보를 기간별, 지역별, 장르별, 가격대별, 공연시설별로 제공함
- 집계된 공연예술의 티켓예매 및 취소 정보를 기반으로 공연시장 규모 현황을 공연의 공급과 수요, 매출액으로 파악할 수 있음
  - 공연예술 공급 = 공연건수
  - 공연예술 수요 = 관객수 = 총 티켓판매수 = 예매수 - 취소수
  - 공연예술 매출 = 티켓판매액
- 공연예술 시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서 2022년 11월8일 추출한 티켓예매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연일자 기준으로 2022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집계된 공연건수, 티켓판매 수, 티켓판매액을 분석함

#### 나. 공연시장 분석 기준

- 공연시장 규모는 공연건수와 티켓판매 수, 티켓판매액 현황을 장르별, 규모별, 지역별, 특성별로 분석함
  - 공연시장의 장르별 구분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을 기준으로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을 중심으로 분석함
  - 공연시장의 규모별 분석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서 분류하고 있는 공

- 연장 좌석수 기준에 따라 100석 미만, 100~300석 미만, 300~500석 미만, 500~1000석 미만, 1000석 이상으로 5개로 구분하여 분석함
- 공연시장의 지역별 규모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이 제공하고 있는 17개 광역시도 중 티켓판매액이 높은 상위 4개 지역인 서울, 경기,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분석함
  - 공연시장의 특성별 규모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아 동공연, 내한공연, 축제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함

## 2. 공연예술 시장 현황

### 가. 2022년 공연시장 현황

-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공연건수는 총 11,122건 으로 약 1,049만 장의 티켓 판매가 이루어져 약 4,213억 원의 매출이 이루어짐

〈표 2-6〉 2022년 공연예술 시장 현황

연도	공연건수	티켓판매 수	티켓판매액(백만원)
2022	11,122	10,493,880	421,302

### 나. 장르별 공연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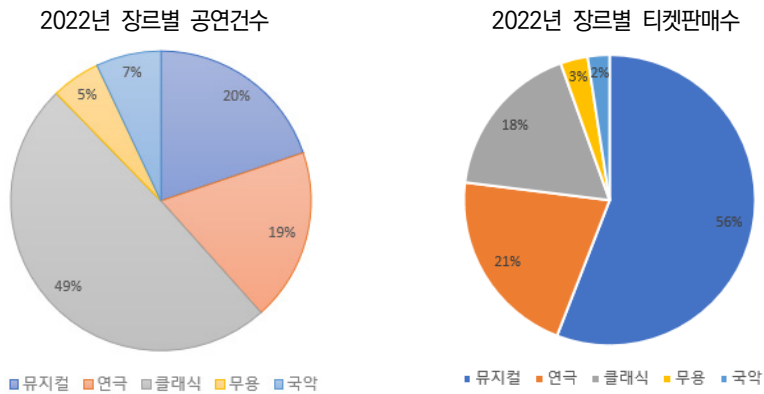
- 2022년 공연시장에서 클래식이 5,366건으로 가장 많은 공연이 이뤄졌고, 무용이 573건으로 가장 적게 공연된 것으로 나타남
  - 클래식은 무용보다 약 9.4배가량 더 많은 공연이 이루어졌고, 클래식 다음으로 많이 공연된 뮤지컬(2,153건)보다 약 2.4배나 많음
  - 전체 공연시장에서 클래식 공연은 48.2%를 차지하였으나, 무용과 국악은 각각 5.2%와 6.8% 정도로, 클래식·연극·뮤지컬이 전체 공연시장의 약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연시장에서 가장 많은 티켓이 판매된 장르는 뮤지컬로 약 581만 매가 판매되었고, 티켓판매액도 뮤지컬이 약 3,262억 원으로 가장 많았음

- 공연수요는 뮤지컬 > 연극 > 클래식 > 무용 > 국악 순이었고, 뮤지컬이 전체 공연시장 관객의 과반수 이상인 56%나 차지함
- 반면, 무용보다 더 많은 공연이 이루어진 국악은 티켓판매는 무용보다 약 1.3% 적었음
- 전체 공연시장에서 뮤지컬의 티켓판매액이 78%나 차지하였고, 클래식과 연극이 각각 11%와 8%를 차지함

〈표 2-7〉 2022년 장르별 공연시장 현황

장르	공연건수	티켓판매 수	티켓판매액(백만원)
뮤지컬	2,153	5,809,507	326,167
연극	2,023	2,191,157	34,907
클래식	5,366	1,827,982	47,595
무용	573	315,801	7,096
국악	761	251,409	4,264

[그림 2-6] 2022년 장르별 공연건수 및 티켓판매수 비율



#### 다. 규모별 공연시장 현황

- 2022년 500-1,000석 미만의 공연장에서 가장 많은 공연인 2,833건이 이루어졌고, 300-500석 미만에서 2,648건이 이루어져 중규모 극장에서 많은 공연 수요가 있음을 나타냄
  - 100석 미만의 공연장에서 가장 적은 1,005건의 공연이 이루어졌고, 이는 전체

공연 약 9.0%밖에 되지 않음

- 1,000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에서는 총 2,038건의 공연이 진행되어 전체 공연 시장에서 약 18.3%를 차지하였음

- 공연수요가 가장 높은 공연장은 1,0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약 442만 매의 티켓이 판매되어 전체 공연시장의 42.1%를 차지하였고, 100-300석 미만 공연장이 약 230만 매가 판매되어 그 뒤를 이음

- 가장 많은 공연이 이루어진 500-1,000석 미만 공연장에서는 약 199만 매의 티켓이 판매되어 공연수요는 100-300석 미만 공연장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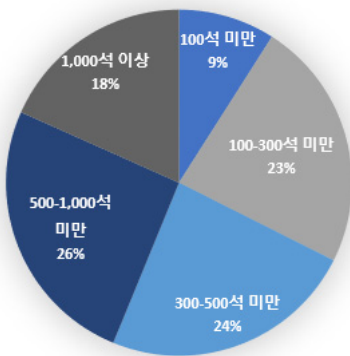
- 공연시장 티켓판매액의 69.2%가 1,000석 이상 공연장에서 발생했고, 공연수요와 관계없이 공연장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티켓판매액도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 2022년 공연장 규모별 공연시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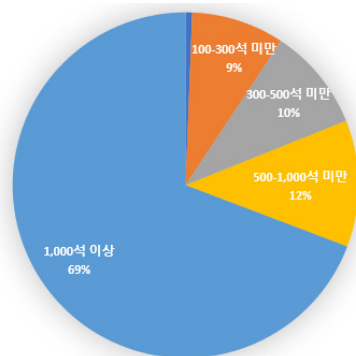
공연장 규모	공연건수	티켓판매 수	티켓판매액(백만원)
100석 미만	1,005	174,847	2,588
100-300석 미만	2,598	2,299,231	36,582
300-500석 미만	2,648	1,607,381	40,574
500-1,000석 미만	2,833	1,991,993	49,919
1,000석 이상	2,038	4,420,428	291,640

[그림 2-7] 2022년 규모별 공연건수 및 티켓판매액 비율

2022년 규모별 공연건수



2022년 규모별 티켓판매액



### 마. 지역별 공연시장 현황

- 전국에서 공연의 공급과 수요, 매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 공연건수 44.0%, 공연수요 67.3%, 티켓판매액 75.8%를 차지함
  - 서울은 총 4,897건의 공연이 진행되어 약 706만명이 공연을 관람했고, 약 3,194억의 티켓이 판매됨
  - 서울 다음으로 공연건수와 티켓판매수, 티켓판매액이 높은 경기도와 비교하여도, 서울의 경기도보다 공연건수는 약 3.0배, 티켓판매수는 약 7.4배, 티켓판매액은 약 1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광역시 단위로 서울 다음으로 공연건수와 티켓판매수가 많은 대구의 공연건수는 전체 공연시장의 약 6.9%였고, 티켓판매수는 약 4.3%를 차지함
  - 부산의 티켓판매액은 약 231억 원으로 전체 공연시장의 약 5.5%를 차지함
  - 대구와 부산은 공연건수와 티켓판매 수는 대구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티켓판매액은 부산이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 2022년 지역별 공연시장 현황

지역	공연건수	티켓판매 수	티켓판매액(백만원)
서울	4,894	7,057,755	319,426
경기	1,580	960,217	25,447
부산	673	428,483	23,071
대구	772	451,770	11,745

### 다. 특성별 공연시장 현황

- 2022년 공연시장에서 아동공연은 총 2,318건으로 전체 공연의 약 18.2%를 차지하였고, 티켓판매는 23.1%나 차지함
  - 아동공연은 가족관객을 대상으로 같은 장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티켓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규모의 공연장에서 공연되기 때문에 공연수요가 높아도 티켓판매액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남
- 2022년 내한공연은 총 206건으로 전체공연시장의 약 1.6%밖에 되지 않지만, 티

켓판매액은 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

- 해외에서 공연예술단체 또는 예술가가 직접 한국을 찾아와 공연을 하는 내한공연은 높은 공연료 때문에 티켓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많은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1,0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에서 판매되는 특성이 있어 공연건수에 비해 티켓판매액의 비중이 전체 공연시장에서 높게 나타남
- 축제는 총 1,211건이 공연되어 전체 공연시장 내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티켓판매수와 티켓판매액은 각각 공연시장의 3.9%와 1.6%를 차지함
  - 많은 공연을 소개하는 축제가 활성화될수록 공연건수는 증가하지만, 축제의 특성에 따라 공연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티켓가격을 책정하여 티켓판매수가 내한공연보다 많지만 티켓판매액은 약 5.4배 적게 나타남

〈표 2-10〉 2022년 특성별 공연시장 현황

지역	공연건수	티켓판매 수	티켓판매액(백만원)
아동공연	1,954	2,228,376	56,801
내한공연	150	319,651	32,158
축제	1,115	401,125	6,259

지역별 공연시장 규모, 특성과 성장 가능성

제3장

## 지역별 공연 시장의 규모 및 특성





# 제1절 지역별 시장의 규모

---

## 1. 지역별 공연티켓 판매현황 및 추이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별 공연 티켓 판매수를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요 감소가 나타남
  - 수요감소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기간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2020년 4분기 다른 지역은 전(前)분기에 비해 티켓 판매수가 늘었으나, 서울지역은 해당 시기 확진자 수 폭증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2021년 2분기 전체 공연티켓 판매수는 약 171만여 건으로 이 기간부터 공연시장에서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남
  - 모든 지역이 2021년 2분기 전년동기 대비 티켓판매수가 증가하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역별로 회복세의 차이가 나타남
-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전체 티켓판매수는 약 375만 여건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약 253만여 건으로 가장 많은 티켓판매수를 보였으며, 대구가 약 15만여건, 경기도가 약 34만여건으로 나타남
  - 아래 <표 3-1>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전체 티켓판매수의 약 70% 정도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공연임
  - 티켓 판매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약 3만 5천 건, 강원 약 6만 7천 건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도, 충청도가 다음으로 가장 적은 공연티켓 판매수를 보임

〈표 3-1〉 지역별 공연 티켓판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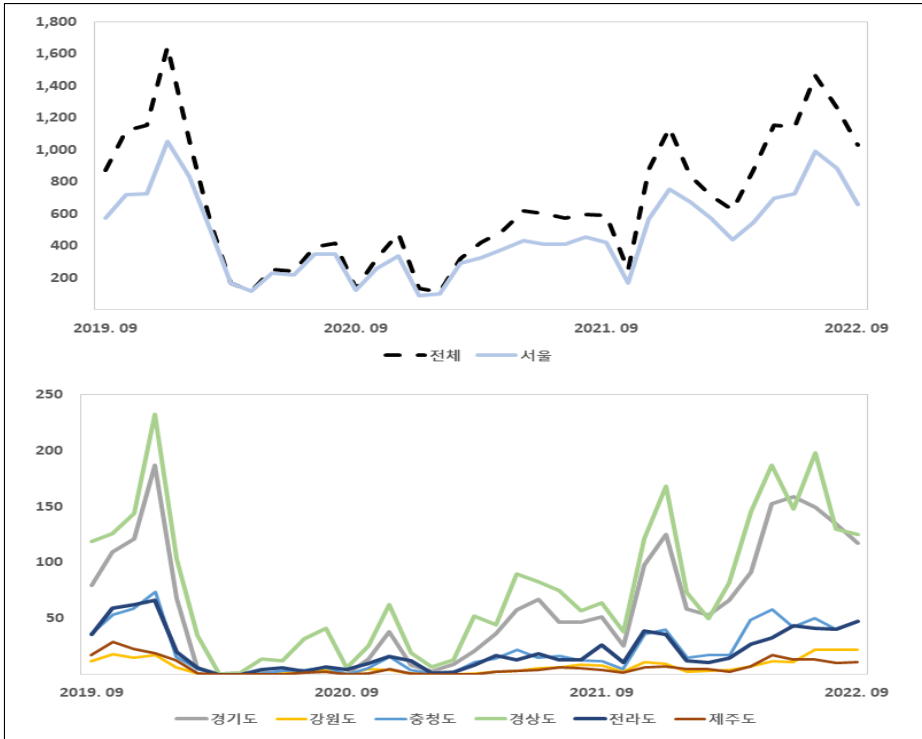
(단위: 천건, %)

연도	2019	2020				2021				2022			전체
	4	1	2	3	4	1	2	3	4	1	2	3	비중 <sup>주)</sup>
전체	3,886	1,712	601	918	936	848	1,715	1,762	2,780	2,182	3,183	3,753	100
서울	2,481	1,449	560	807	687	715	1,216	1,288	1,836	1,685	1,974	2,532	71.0
부산	146	77	15	26	29	36	110	58	110	74	181	129	4.1
대구	166	26	2	25	46	23	58	78	154	73	155	153	4.0
울산	56	13	1	1	5	3	6	12	21	16	25	35	0.8
경남	63	6	3	13	12	7	29	18	49	31	69	68	1.5
경북	68	7	3	8	15	4	14	31	57	11	51	66	1.4
경기	325	60	2	7	53	26	138	128	260	149	337	341	7.5
인천	88	12	0.4	2	11	8	23	17	39	29	65	60	1.5
대전	94	8	3	4	13	11	20	15	45	21	68	56	1.5
충남	65	4	1	3	9	2	21	16	33	15	44	45	1.1
충북	21	3	0.3	1	3	0.2	8	7	13	13	23	22	0.5
세종	6	2	0.01	0.3	1	0.1	2	2	8	3	18	15	0.2
광주	88	7	6	1	16	5	23	21	37	15	48	52	1.3
전남	44	14	2	4	13	3	10	13	31	8	20	33	0.8
전북	55	4	1	4	10	4	16	19	41	15	38	44	1.0
제주	70	14	0.2	4	6	1	9	16	20	12	38	35	0.9
강원	50	7	2	7	9	1	11	23	27	10	30	67	1.0

주: 비중은 기간 간 전체 티켓판매수 합 의 지역별 비중을 나타냄

[그림 3-1] 지역별 공연 티켓판매수

(단위: 천건)



- 아래 <표 3-2>는 우리나라 지역별 공연티켓 매출액 추이이며, 2022년 3분기 매출액은 약 1,410억 원으로 나타남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별 공연 티켓 매출액을 살펴보면 티켓 판매수와 동일하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모든 지역에서 매출감소가 나타남
  - 서울은 매출액이 2020년 2분기 전 분기 대비 1/3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다른 지역은 감소폭은 서울 감소폭을 상회함
- 2021년 2분기 전체 공연티켓 매출액은 약 755억 원으로 이 기간이후 공연매출액이 회복세를 보임
  - 2022년 3분기 기준 2019년 4분기 대비 매출이 증가한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이며, 경상도, 제주도 지역은 '19년 동기대비 각각 매출이 40%, 64% 수준으로 나타남

- 서울지역의 매출이 우리나라 공연시장 전체 매출의 79% 수준으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공연이 우리나라 전체 공연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

〈표 3-2〉 지역별 공연티켓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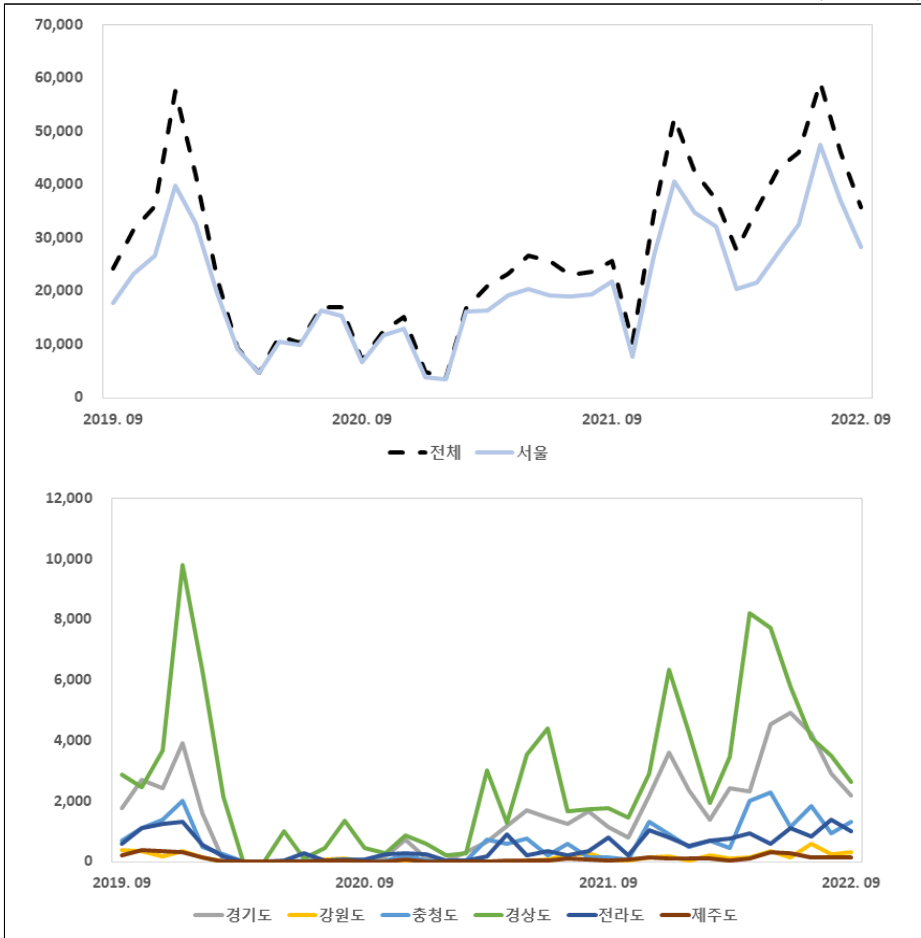
(단위: 천만원, %)

연도	2019				2020				2021				2022			전체
분기	4	1	2	3	4	1	2	3	4	1	2	3	비중 <sup>주)</sup>			
전체	12,303	7,168	2,662	4,082	3,295	4,176	7,550	7,240	11,731	10,713	12,431	14,104	100			
서울	8,851	6,024	2,514	3,806	2,885	3,616	5,871	6,026	9,082	8,706	8,137	11,261	78.8			
부산	681	638	84	46	55	276	742	222	390	454	1,387	359	5.5			
대구	533	84	2	164	83	62	58	171	577	305	400	289	2.8			
울산	145	41	1	1	9	2	12	49	32	52	51	120	0.5			
경남	142	20	23	6	11	10	98	29	133	139	253	155	1.0			
경북	63	17	1	5	15	3	13	45	96	17	72	95	0.5			
경기	666	160	1	8	95	85	394	365	707	524	969	797	4.9			
인천	217	11	0.32	2	15	17	37	41	104	93	210	135	0.9			
대전	284	40	4	6	19	76	49	25	164	83	263	189	1.2			
충남	117	24	1	3	8	4	57	15	67	49	120	113	0.6			
충북	43	4	0.4	2	3	0.4	50	43	11	27	82	74	0.3			
세종	6	2	0.02	0.02	1	0.1	3	3	21	6	85	34	0.2			
광주	188	33	28	2	36	7	45	38	56	51	78	67	0.6			
전남	98	22	1	2	25	4	48	57	90	32	61	107	0.6			
전북	80	15	0	6	18	10	54	38	137	113	126	150	0.8			
제주	105	17	0	6	8	1	10	19	29	29	71	42	0.3			
강원	85	15	2	18	9	2	10	54	36	33	66	116	0.5			

주: 비중은 기간 간 전체 티켓판매금액 합외 지역별 비중을 나타냄

[그림 3-2] 지역별 공연티켓 매출액

(단위: 백만원)



- 위의 공연티켓 판매수와 매출액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공연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공연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다음 절에서 지역의 공연티켓 판매 수 및 매출액을 장르별로 분석하여 지역별 유망 장르를 탐색하고 지역 장르별 공연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제2절 지역별 시장의 장르 특성

### 1. 지역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현황과 추이

#### 1) 서울

- 서울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분기를 기준으로 전년동기('19년 4분기)대비 장르별 평균 21% 수준으로 공연티켓 판매 수가 감소
  - 장르별로 국악 15%, 무용 13%, 뮤지컬 28%, 복합공연 10%, 연극 29%, 오페라 23%, 클래식 공연 30% 수준으로 감소함
  - 2022년 3분기 기준 '19년 4분기) 대비 매출 수준을 살펴보면 국악 105%, 무용 37%, 뮤지컬 114%, 복합공연 29%, 연극 103%, 오페라 53%, 클래식 89% 수준으로 나타남
  - 대중적인 공연인 뮤지컬, 연극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오페라, 무용 복합공연 등은 '19년 대비 아직 회복이 더딘 상황임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를 살펴보면 뮤지컬이 약 1585.4만 건으로 가장 많은 티켓 판매수를 보인 장르였으며, 연극 약 701.6만 건, 클래식 약 337.8만 건, 무용 약 73.7만 건 등으로 나타남

2) 전년동기인 '19년 3분기와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나, 2019년 9월부터 KOPIS자료가 전송처 확대 등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19년 4분기와 비교함

〈표 3-3〉 서울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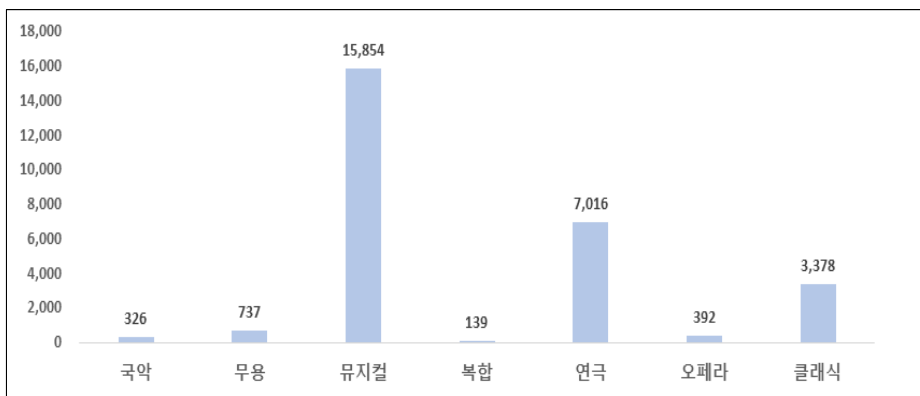
(단위: 천 건)

연도	2019	2020				2021				2022		
분기	4	2	3	4	1	2	3	4	1	2	3	
국악	40.0	2.4	1.9	5.9	4.8	14.0	11.3	23.1	7.2	31.3	42.0	
무용	127.0	7.1	7.8	17.1	12.9	44.9	21.2	69.1	12.2	69.4	47.1	
뮤지컬	1280	330	527	360	409	654	777	793	1061	1080	1457	
복합	41.0	1.5	2.7	4.3	0.7	7.0	3.9	3.4	7.0	7.4	11.7	
연극	651.1	168.1	190.8	190.9	200.1	299.4	274.3	381.4	432.0	460.6	668.7	
오페라	45.7	7.2	14.7	10.4	3.7	20.9	23.1	24.9	5.3	42.4	24.0	
클래식	314.3	46.3	72.8	93.6	82.7	174.6	177.3	188.7	161.0	277.6	280.3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3] 2019년 9월 ~2022년 9월 서울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

(단위: 천건)



- 매출액 기준으로 서울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전년동기 (19년 4분기)대비 장르별로 평균 28% 수준으로 공연티켓 매출이 감소
  - 장르별로 국악 19%, 무용 10%, 뮤지컬 32%, 복합공연 30%, 연극 34%, 오페라 32%, 클래식 공연 43% 수준으로 감소함
  - 2022년 3분기 기준 `19년 4분기 대비 매출 수준을 살펴보면 국악 210%, 무용 39%, 뮤지컬 138%, 복합공연 17%, 연극 105%, 오페라 49%, 클래식 10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94%의 매출비중을 나타냄
  - 대중적인 공연인 뮤지컬, 연극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오페라, 무용

복합공연 등은 '19년 대비 아직 매출도 회복이 더딘 상황임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을 살펴보면 뮤지컬이 약 5,51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을 보인 장르였으며, 연극 약 645억 원, 클래식 약 522억 원, 무용 약 137억 원 등으로 나타남
- 서울지역은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이 공연시장 주요 장르였으며, 복합공연, 국악이 가장 어려운 장르로 나타남

〈표 3-4〉 서울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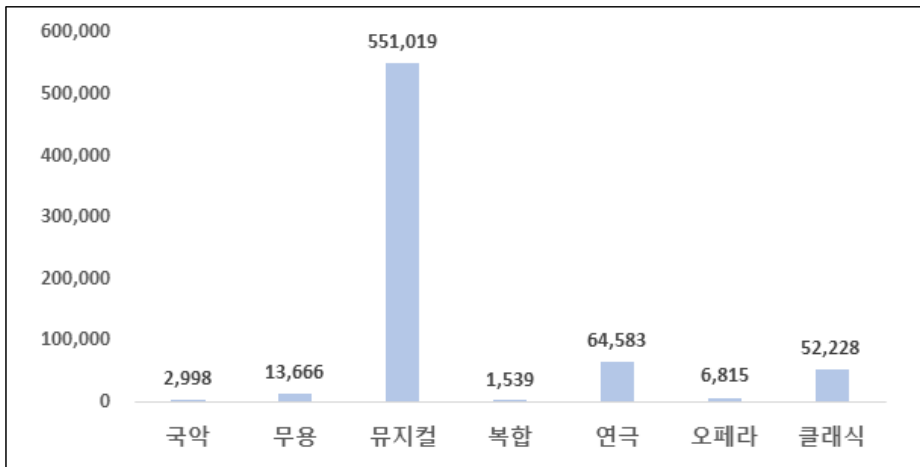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분기	4	2	3	4	1	2	3	4	1	2	3
국악	345	40	40	64	40	145	117	988	86	408	725
무용	4,116	120	233	392	295	1,156	424	2,818	345	2,153	1,613
뮤지컬	66,625	21,653	33,264	21,219	28,114	46,393	48,183	56,903	73,272	63,361	92,031
복합	590	26	64	179	8	108	25	41	342	57	99
연극	10,183	2,770	3,165	3,462	4,980	5,436	3,767	6,183	7,823	6,119	10,691
오페라	1,111	33	400	350	287	428	1,530	832	85	1,214	545
클래식	6,833	447	1,086	2,938	2,345	5,039	6,215	7,121	5,216	8,083	6,905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4〉 2019년 9월 ~2022년 9월 서울 장르별 공연티켓 총 매출액

(단위: 백만원)





## 2) 경기도

- 경기도 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전년동기(19년 4분기) 대비 장르별로 평균 21% 수준으로 공연티켓 판매 수가 감소
  - 장르별로 국악 31%, 무용 22%, 뮤지컬 7%, 복합공연 13%, 연극 29%, 오페라 24%, 클래식 공연 25% 수준으로 감소함
  - 2022년 3분기 기준 `19년 4분기 대비 매출 수준을 살펴보면 국악 94%, 무용 77%, 뮤지컬 92%, 복합공연 51%, 연극 92%, 오페라 78%, 클래식 128% 수준으로 나타남
  - 클래식 공연은 코로나19 이전의 공연티켓 예매수를 넘어섰지만 타 공연들은 `19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 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를 살펴보면 뮤지컬이 약 203만 건으로 가장 많은 티켓 판매수를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89.3만 건, 연극 약 31.1만 건, 무용 약 18.6만 건 등으로 나타남

〈표 3-5〉 경기도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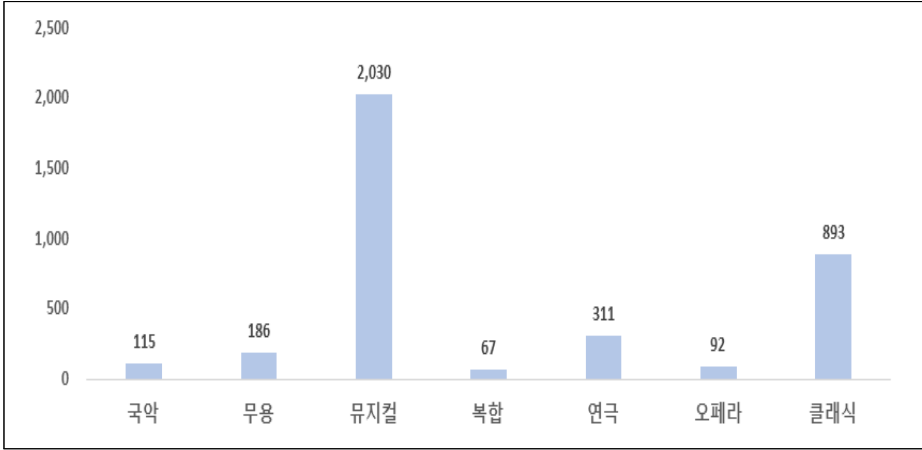
(단위: 천 건)

연도	2019				2020				2021				202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국악	12.0	3.2	0.6	3.7	1.3	4.8	4.2	6.5	6.9	10.6	11.3				
무용	28.8	0.0	0.0	6.3	0.8	6.9	9.8	18.3	1.6	12.8	22.2				
뮤지컬	235	0.4	3.7	15.4	13.6	73.6	75.0	133.3	122.4	243.9	216.2				
복합	15.6	0.0	0.6	2.0	0.7	1.6	3.7	5.4	0.5	3.3	8.0				
연극	34.7	0.3	0.4	9.9	3.2	19.4	7.9	22.2	8.2	34.7	31.8				
오페라	10.0	0.6	0.0	2.4	0.7	3.7	3.1	7.7	3.7	11.8	7.8				
클래식	81.0	1.0	2.9	20.3	12.9	50.8	41.5	54.2	34.0	85.1	103.8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5] 2019년 9월 ~2022년 9월 경기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

(단위: 천건)



- 매출액 기준으로 경기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전년동기 (19년 4분기)대비 장르별로 평균 24% 수준으로 공연티켓 매출이 감소

  - 장르별로 국악 39%, 무용 22%, 뮤지컬 4%, 복합공연 12%, 연극 25%, 오페라 33%, 클래식 공연 30% 수준으로 감소함
  - 2022년 3분기 기준 `19년 4분기 대비 매출 수준을 살펴보면 국악 220%, 무용 70%, 뮤지컬 110%, 복합공연 30%, 연극 72%, 오페라 64%, 클래식 10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96%의 매출비중을 나타냄
  - 국악, 뮤지컬, 클래식 공연은 19년 4분기보다 매출이 증가하였으나, 무용, 오페라, 연극, 복합공연 등은 `19년 대비 매출 회복이 더딘 상황임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을 살펴보면 뮤지컬이 약 366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104억 원, 연극 약 22.5억 원 등으로 나타남
- 경기지역은 뮤지컬, 다음으로 클래식이 공연시장 주요 장르로 나타났으며, 복합공연, 국악이 가장 어려운 장르로 나타남

〈표 3-6〉 경기도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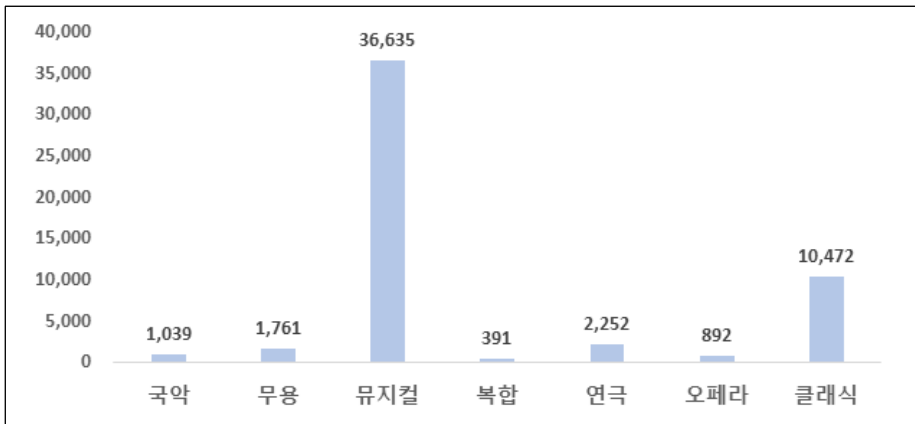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국악	46	1	4	18	17	55	70	59	424	244	101				
무용	481	0	0	108	11	91	156	351	19	210	335				
뮤지컬	6,158	4	48	240	390	2,144	2,549	4,589	4,696	9,056	6,761				
복합	181	0	5	21	8	13	14	49	4	42	55				
연극	421	4	2	104	39	260	111	277	185	539	304				
오페라	161	2	0	53	9	76	45	179	111	155	103				
클래식	1,601	10	37	484	543	1,669	1,119	1,063	729	1,552	1,663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6] 2019년 9월 ~2022년 9월 경기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매출액

(단위: 백만원)



### 3) 강원도

- 강원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전년동기(19년 4분기)대비 장르별로 평균 33% 수준으로 공연티켓 판매 수가 감소
  - 장르별로 국악 14%, 무용 63%, 뮤지컬 3%, 복합공연 0%, 연극 29%, 클래식 공연 2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오페라는 비슷한 수준이었음
  - 2022년 3분기 기준 `19년 4분기 대비 매출 수준을 살펴보면 국악 86%, 무용 475%, 뮤지컬 155%, 복합공연 74%, 연극 45%, 오페라 500%, 클래식 135%

### 수준으로 나타남

- 모든 장르에서 코로나19 이전의 공연티켓 예매수를 넘어섰으나, 이전에도 강원 지역의 공연티켓 판매수는 제주 다음으로 적은 지역임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를 살펴보면 뮤지컬이 약 17.5만 건으로 가장 많은 티켓 판매수를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13.5만 건, 연극 약 4.1만 건, 무용 약 2.3만 건 등으로 나타남

〈표 3-7〉 강원도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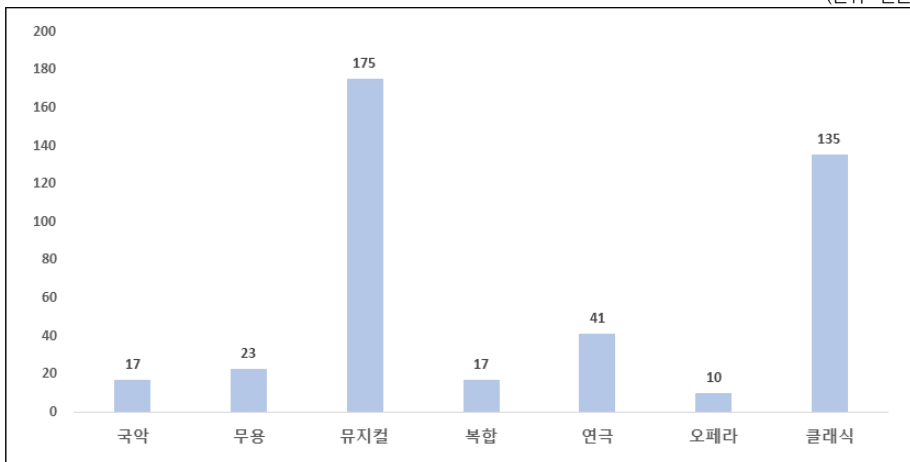
(단위: 천 건)

연도	2019				2020				2021				2022		
	1	2	3	4	1	2	3	4	1	2	3	4	5	6	
국악	2.9	0.3	0.1	0.4	0.0	0.2	0.6	1.7	1.3	0.1	2.5				
무용	0.8	0.0	0.5	0.5	0.0	0.2	1.6	2.7	0.0	1.6	3.8				
뮤지컬	19.3	0.0	2.6	0.5	0.3	3.2	9.4	11.1	5.3	15.6	29.9				
복합	2.7	0.4	2.0	0.0	0.0	1.9	0.3	0.6	0.0	0.0	2.0				
연극	7.5	0.3	1.1	2.2	0.5	1.3	1.6	1.0	0.3	5.3	3.4				
오페라	0.5	0.0	0.0	0.5	0.0	0.7	0.0	1.0	0.0	0.0	2.5				
클래식	16.8	1.3	3.2	3.3	0.6	3.5	9.3	4.8	3.4	7.5	22.6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7] 2019년 9월 ~ 2022년 9월 강원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

(단위: 천건)



- 매출액 기준으로 강원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전년동기 (19년 4분기)대비 장르별로 평균 65% 수준으로 공연티켓 매출이 감소
  - 장르별로 무용 3%, 뮤지컬 4%, 복합공연 0%, 연극 19%, 클래식 공연 20% 수준으로 감소함
  - 2022년 3분기 기준 2019년 4분기 대비 매출 수준을 살펴보면 국악 300%, 무용 243%, 뮤지컬 108%, 복합공연 55%, 연극 25%, 오페라 500%, 클래식 256%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213%의 매출비중을 나타냄
  - 복합, 연극 공연을 제외한 모든 장르의 공연이 19년 4분기보다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연극공연이 `19년 4분기에 비해 25% 수준으로 회복이 더딤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을 살펴보면 뮤지컬이 약 213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133.8억 원, 연극 약 35.7억 원 등으로 나타남

〈표 3-8〉 강원도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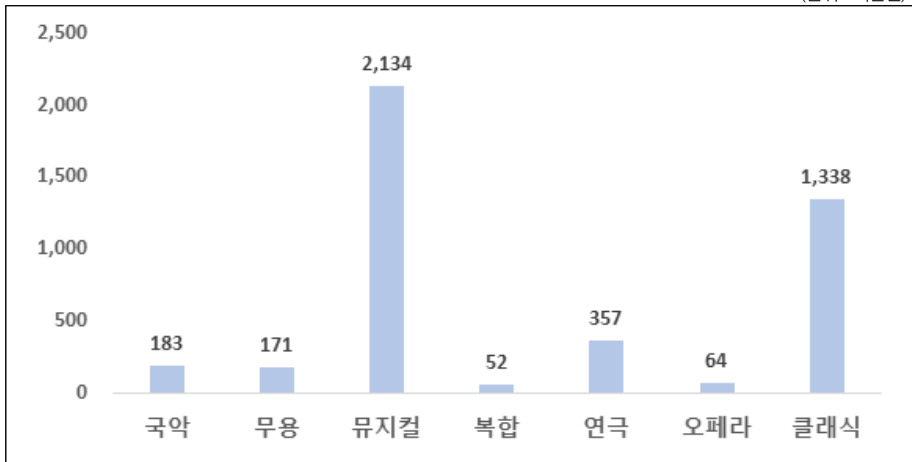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국악	2	8	0	3	0	0	4	7	151	0	6				
무용	30	0	3	1	0	1	16	48	0	0	73				
뮤지컬	515	0	9	19	6	39	209	227	144	407	557				
복합	20	2	5	0	0	8	3	3	0	0	11				
연극	93	3	8	18	4	15	10	4	4	175	23				
오페라	5	0	0	13	0	6	0	15	0	0	25				
클래식	183	9	164	36	7	27	303	25	28	78	469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8] 2019년 9월 ~ 2022년 9월 강원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매출액

(단위: 백만원)



- 아래 <표 3-9>, [그림 3-9]은 지역별 축제공연 티켓 판매수, <표 3-10>, [그림 3-10]은 지역별 축제공연 티켓 매출액을 나타내는데 강원지역은 서울, 경기, 경상도를 제외하면 타 지역에 비해 축제공연 티켓 판매수와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9> 지역별 축제공연 티켓 판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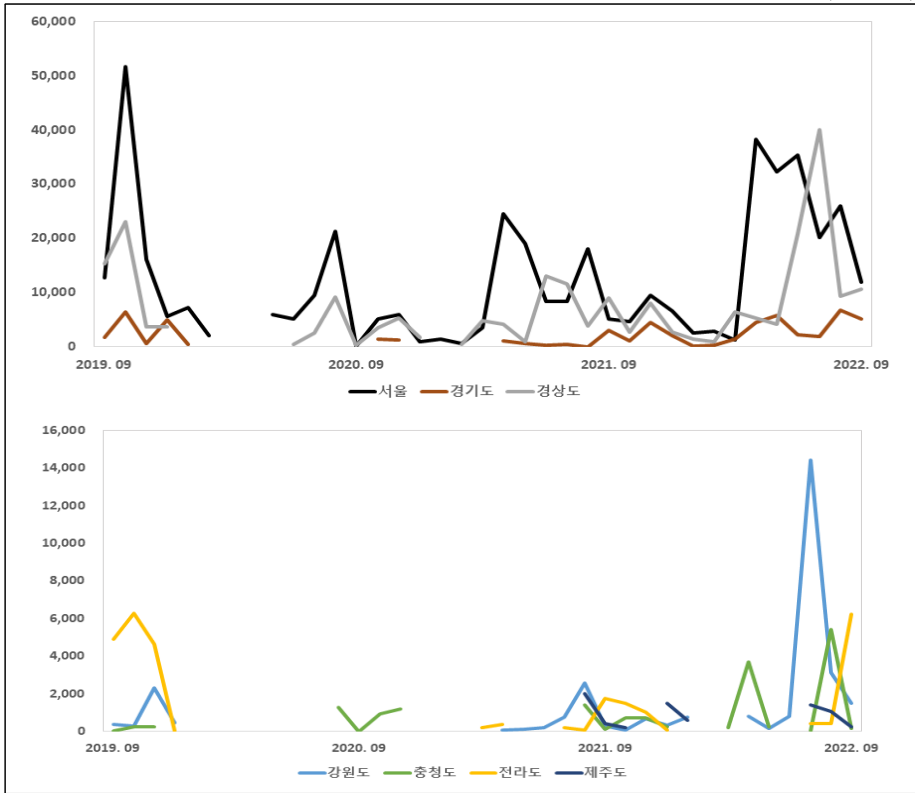
(단위: 천건)

연도	2019				2020				2021				2022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전체	130	11.7	46.4	28.0	11.2	75.3	68.7	48.6	18.6	155	166				
서울	73.4	11.1	30.9	11.9	5.5	51.9	31.4	20.6	6.6	106	58.0				
경기	11.9	0.0	1.0	2.5	0.0	2.0	3.4	7.5	1.7	12.4	13.7				
강원	3.1	0.3	0.0	0.0	0.3	0.3	3.6	1.1	0.8	1.7	19.0				
충청	0.5	0.0	1.3	2.1	0.0	2.3	1.5	1.7	0.2	3.9	5.6				
경상	30.3	0.4	11.9	10.3	5.2	18.1	24.4	13.5	8.7	30.1	60.0				
전라	11.0	0.0	1.3	1.0	0.2	0.4	2.0	2.6	0.0	0.8	7.1				
제주	0.1	0.0	0.0	0.1	0.0	0.3	2.4	1.7	0.6	0.0	2.7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9] 지역별 축제공연 티켓 판매수

(단위: 천건)



〈표 3-10〉 지역별 축제공연 티켓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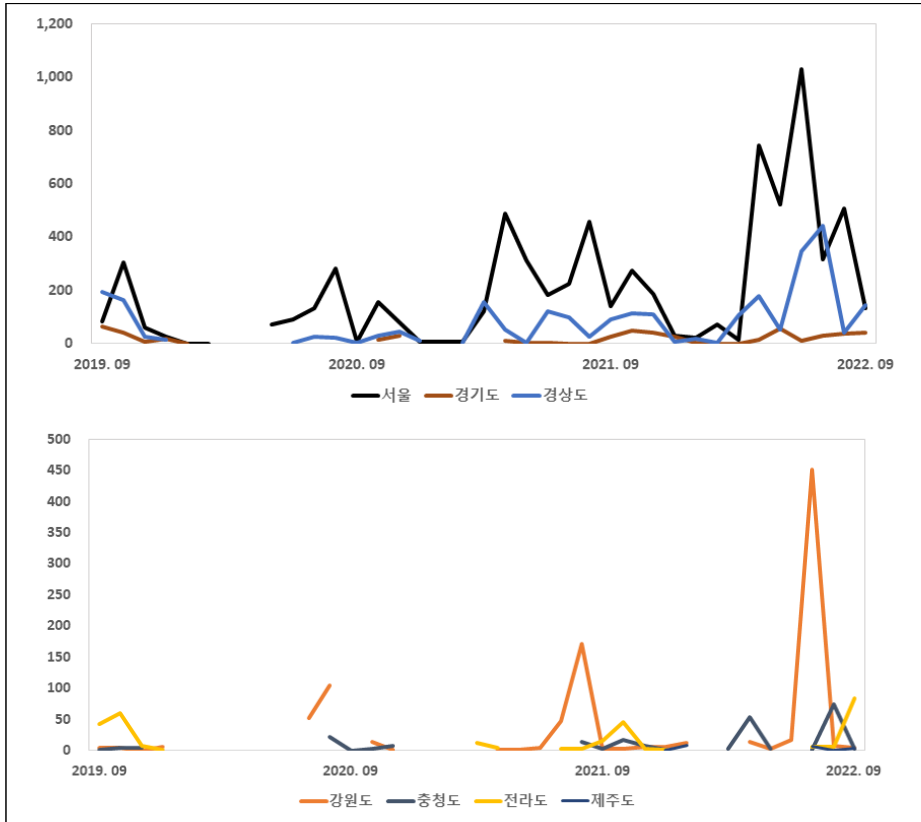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3	2	3	4	1	2	3	4	1	2	3	1	2	3	
전체	739	170	665	387	305	1,211	1,327	908	254	3,044	2,327				
서울	391	162	418	236	130	986	820	484	106	2,294	954				
경기	63	0	10	44	0	15	27	110	1	81	104				
강원	9	5	156	13	6	7	221	14	11	34	463				
충청	7	0	22	10	1	24	16	25	2	55	76				
경상	202	3	49	83	156	172	215	227	126	575	624				
전라	67	0	10	0	12	5	20	49	0	4	96				
제주	0	0	0	0	0	3	10	0	7	0	10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10] 지역별 축제공연 티켓 매출액

(단위: 백만원)



#### 4) 충청도

- 충청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전년동기('19년 4분기)대비 장르별로 평균 20% 수준으로 공연티켓 판매 수가 감소함
  - 장르별로 국악 33%, 무용 18%, 뮤지컬 6%, 복합공연 13%, 연극 13%, 오페라 27%, 클래식 공연 30% 수준으로 감소함
  - 2022년 3분기 기준 '19년 4분기 대비 매출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7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국악 126%, 무용 33%, 뮤지컬 78%, 복합공연 12%, 연극 64%, 오페라 78%, 클래식 104% 수준으로 나타남
  - 국악, 클래식 장르를 제외하면 공연티켓 판매 수 회복이 더딘 상황으로 보이며, 무용 장르가 가장 낮은 수준의 회복을 보임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를 살펴보면 뮤지컬이 약 67.5만 건으로 가장 많은 공연티켓 판매수를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27.3만 건, 연극 약 16.2만 건, 무용 약 7.8만 건 등으로 나타남

〈표 3-11〉 충청도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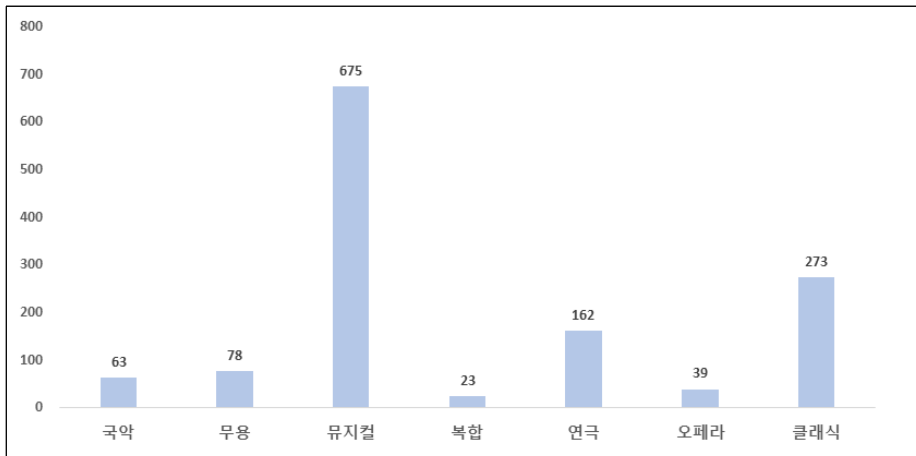
(단위: 천 건)

연도	2019	2020			2021				2022		
분기	4	2	3	4	1	2	3	4	1	2	3
국악	5.4	0.7	0.5	1.8	0.9	2.8	2.2	4.8	1.8	6.8	6.8
무용	16.2	0.4	0.0	2.9	0.4	1.4	1.1	9.6	2.6	7.3	5.3
뮤지컬	94.4	0.4	3.4	5.7	7.8	25.8	18.8	34.3	37.5	83.2	73.8
복합	9.2	0.0	0.7	1.2	0.0	0.0	1.2	2.4	0.6	0.0	1.1
연극	26.1	2.7	3.5	3.5	0.9	5.4	9.3	10.4	1.2	15.4	16.8
오페라	6.7	0.0	1.0	1.8	0.0	0.3	0.6	4.4	0.1	2.7	5.2
클래식	27.9	0.7	2.0	8.4	3.5	15.9	7.6	16.1	6.1	33.8	28.9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11] 2019년 9월 ~ 2022년 9월 충청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

(단위: 천건)



- 매출액 기준으로 충청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전년동기 (19년 4분기)대비 장르별로 평균 13% 수준으로 공연티켓 매출이 감소
  - 장르별로 국악 19%, 무용 5%, 뮤지컬 3%, 복합공연 20%, 연극 13%, 오페라

9%, 클래식 공연 21% 수준으로 감소함

- 2022년 3분기 기준 `19년 4분기 대비 매출 수준을 살펴보면 장르별 평균 71% 수준으로 국악 102%, 무용 12%, 뮤지컬 99%, 복합공연 41%, 연극 57%, 오페라 39%, 클래식 149% 수준으로 나타남
- 국악, 뮤지컬, 클래식 공연은 `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무용, 복합공연, 오페라 등의 공연장르는 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2019년 3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을 살펴보면 뮤지컬이 약 149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35.4억 원, 연극 약 15억 원 등으로 나타남
- 충청지역은 뮤지컬, 다음으로 클래식이 공연시장 주요 장르로 나타났으며, 복합공연, 국악, 오페라가 가장 어려운 공연장르로 나타남

〈표 3-12〉 충청도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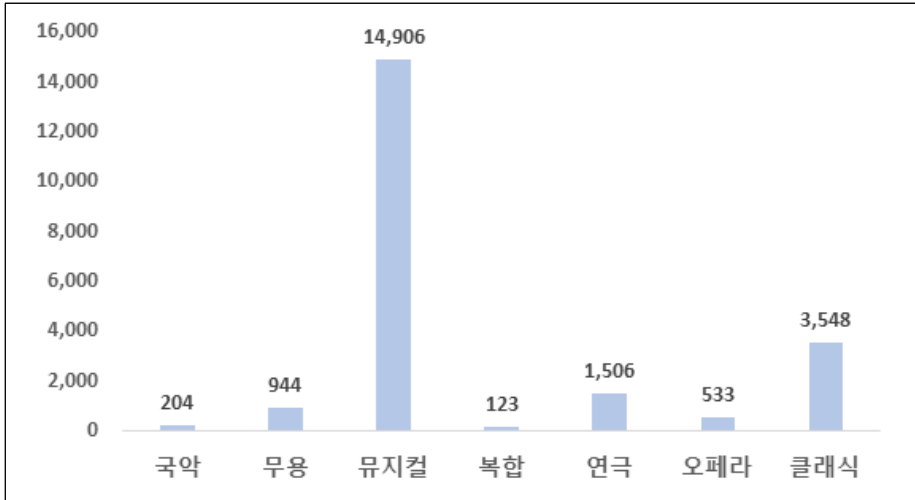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4	2	3	4	1	2	3	4	1	2	3
국악	42	1	3	8	14	12	10	25	6	40	43
무용	386	0	0	21	2	12	22	256	73	125	48
뮤지컬	2,797	5	41	78	697	1,165	596	1,273	1,436	4,051	2,768
복합	41	0	6	8	0	0	8	40	3	0	17
연극	441	42	52	56	15	77	136	157	20	257	252
오페라	198	0	6	18	0	3	6	104	1	119	77
클래식	606	3	27	125	65	315	82	474	85	863	902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12] 2019년 9월 ~ 2022년 9월 충청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매출액

(단위: 백만원)



### 5) 경상도

- 경상도 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전년동기(19년 4분기) 대비 장르별로 평균 23% 수준으로 공연티켓 판매 수가 감소함

  - 장르별로 국악 23%, 무용 23%, 뮤지컬 13%, 복합공연 8%, 연극 20%, 오페라 26%, 클래식 공연 49% 수준으로 감소함
  - 2022년 3분기 기준 19년 4분기 대비 공연티켓 판매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9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국악 55%, 무용 74%, 뮤지컬 82%, 복합공연 102%, 연극 88%, 오페라 144%, 클래식 120% 수준으로 나타남
  - 국악, 무용, 뮤지컬, 연극장르가 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 하였으며, 복합 공연의 회복수준이 높게 나타남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를 살펴보면 뮤지컬이 약 242.8만 건으로 가장 많은 공연티켓 판매수를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113만 건, 연극 약 72.7만 건, 무용 약 22.6만 건 등으로 나타남

〈표 3-13〉 경상도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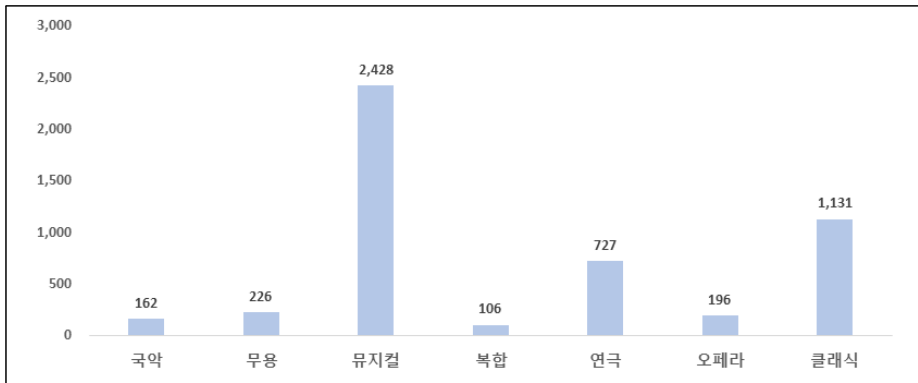
(단위: 천 건)

연도	2019	2020		2021				2022			
	3	2	3	4	1	2	3	4	1	2	3
국악	25.6	0.7	1.9	5.9	2.1	7.6	5.7	8.9	8.6	13.4	14.0
무용	32.5	2.3	2.7	7.4	1.4	10.2	9.1	21.0	4.7	15.1	23.9
뮤지컬	247.2	11.0	30.6	31.2	36.1	116.3	80.4	159.1	118.4	251.1	202.9
복합	15.4	0.1	2.0	1.3	1.1	2.8	6.4	7.7	1.3	6.7	15.7
연극	84.5	7.2	29.0	17.0	10.1	23.5	31.9	36.8	20.8	52.3	74.2
오페라	20.6	0.6	4.7	5.3	3.9	4.8	7.6	11.2	5.2	13.7	29.7
클래식	77.1	5.3	10.6	37.8	17.6	52.7	54.9	82.5	46.4	127.3	92.6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13] 2019년 9월 ~ 2022년 9월 경상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

(단위: 천건)



- 매출액 기준으로 충청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전년동기 (19년 4분기)대비 장르별로 평균 16% 수준으로 공연티켓 매출이 감소
  - 장르별로 국악 21%, 무용 4%, 뮤지컬 7%, 복합공연 6%, 연극 14%, 오페라 25%, 클래식 공연 37% 수준으로 감소함
  - 2022년 3분기 기준 `19년 4분기 대비 매출 수준을 살펴보면 장르별 평균 74% 수준으로 국악 51%, 무용 20%, 뮤지컬 54%, 복합공연 75%, 연극 65%, 오페라 87%, 클래식 168% 수준으로 나타남
  - 클래식 공연은 `19년 4분기 수준을 넘어섰으나, 무용, 국악, 뮤지컬, 연극, 오페

라 등의 공연장르는 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을 살펴보면 뮤지컬이 약 737.8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142.4억 원, 연극 약 65.1억 원 등으로 나타남
- 경상도 지역은 뮤지컬, 다음으로 클래식이 공연시장 주요 장르로 나타났으며, 복합 공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회복속도도 빠르고 비중이 높은 장르임

〈표 3-14〉 경상도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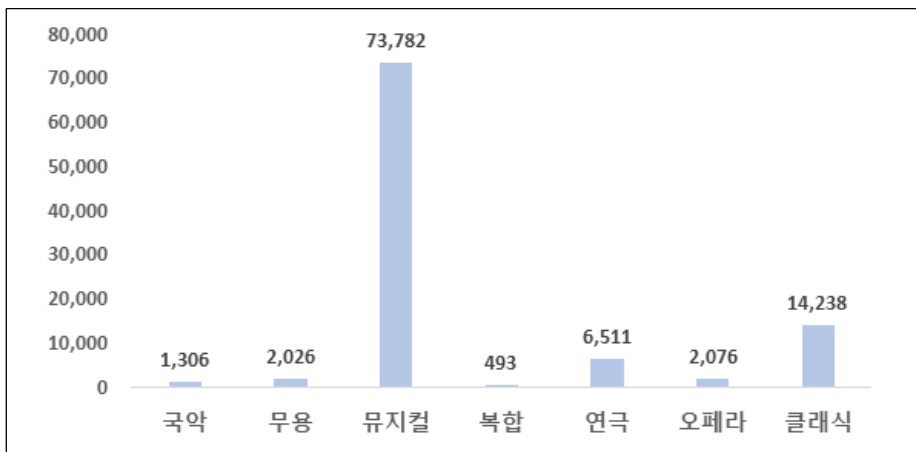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4	2	3	4	1	2	3	4	1	2	3
국악	152	7	11	32	10	80	28	74	536	298	77
무용	1,053	3	31	44	6	80	70	300	35	196	209
뮤지컬	11,189	964	1,663	771	3,066	7,704	3,347	8,474	7,158	15,276	5,994
복합	146	1	4	9	8	28	73	60	10	47	109
연극	1,509	100	440	211	131	382	325	600	403	887	986
오페라	413	4	27	105	47	70	104	165	80	295	359
클래식	1,470	42	88	549	269	876	1,214	1,025	1,433	4,712	2,474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14] 2019년 9월 ~ 2022년 9월 경상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매출액

(단위: 백만원)



- 아래 <표 3-15>과 [그림 3-15]은 복합공연 티켓 판매수, <표 3-16>과 [그림 3-16]은 복합공연 매출액으로 경상도 지역의 복합공연이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연티켓 판매수와 매출액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15> 지역별 복합공연 티켓 판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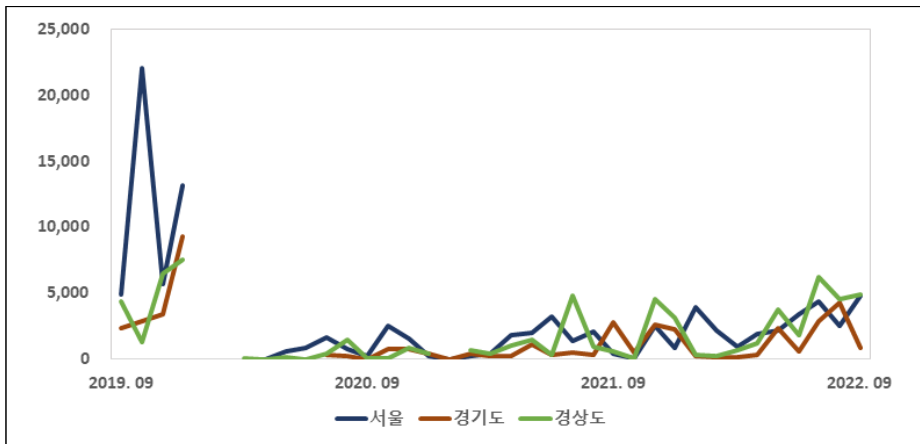
(단위: 천건)

연도	2019	2020			2021				2022		
분기	4	2	3	4	1	2	3	4	1	2	3
서울	41.0	1.5	2.7	4.3	0.7	7.0	3.9	3.4	7.0	7.4	11.7
경기	15.6	0.0	0.6	2.0	0.7	1.6	3.7	5.4	0.5	3.3	8.0
강원	2.7	0.4	2.0	0.0	0.0	1.9	0.3	0.6	0.0	0.0	2.0
충청	9.2	0.0	0.7	1.2	0.0	0.0	1.2	2.4	0.6	0.0	1.1
경상	15.4	0.1	2.0	1.3	1.1	2.8	6.4	7.7	1.3	6.7	15.7
전라	7.9	0.2	0.0	2.1	0.2	1.8	0.9	2.5	0.4	1.8	1.3
제주	0.2	0.0	0.0	0.1	0.0	0.1	0.2	1.6	0.0	0.1	4.6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15] 지역별 복합공연 티켓 판매수(서울, 경기도, 경상도)

(단위: 건)



〈표 3-16〉 지역별 복합공연 티켓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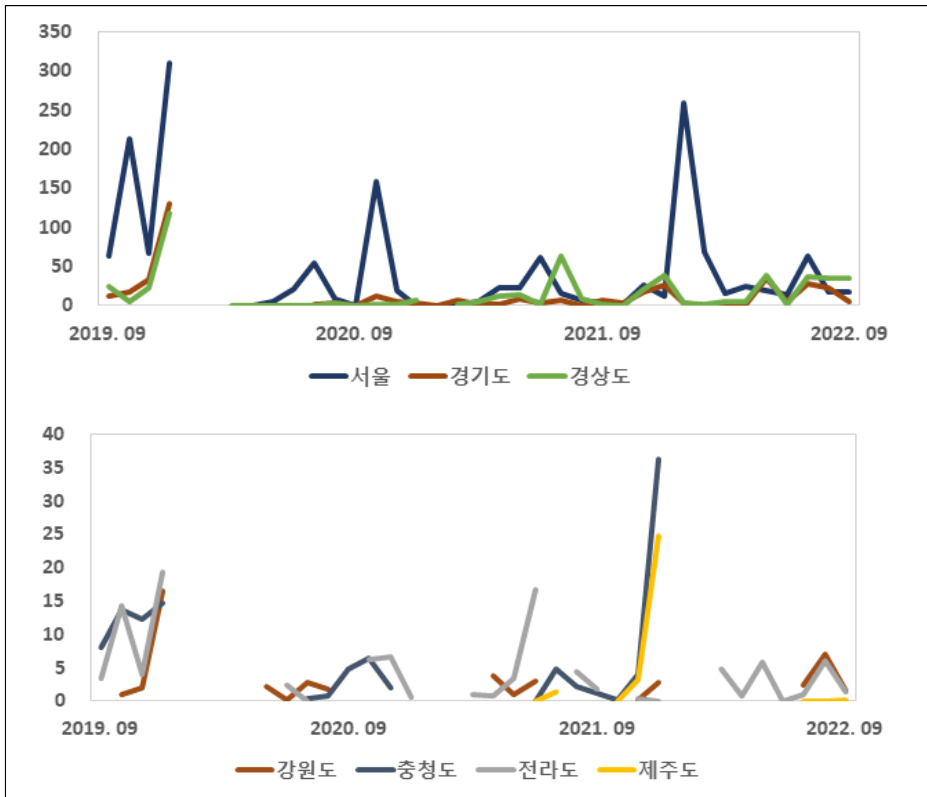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분기	4	2	3	4	1	2	3	4	1	2	3
서울	590	26.1	63.7	179	8.2	108	25.5	40.5	342	56.7	99.1
경기	181	0.0	4.5	21.3	8.3	13.2	13.7	48.8	4.1	42.1	54.8
강원	19.5	2.4	4.7	0.1	0.0	7.6	3.1	3.1	0.0	0.0	11.2
충청	40.7	0.0	6.0	8.4	0.0	0.1	8.3	40.4	2.7	0.0	16.9
경상	146	0.5	4.1	8.7	7.8	27.5	72.6	60.3	10.0	46.7	109
전라	37.5	2.4	0.0	13.3	1.1	20.8	6.1	0.4	4.8	6.5	8.6
제주	0.0	0.0	0.0	0.0	0.0	0.0	1.3	28.1	0.0	0.0	0.2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16] 지역별 복합공연 티켓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원)



■ 아래 〈표 3-17〉과 [그림 3-17]은 오페라공연 티켓 판매수, 〈표 3-18〉과 [그림

3-18)은 오페라공연 매출액으로 경상도 지역의 오페라공연이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연티켓 판매수와 매출액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17〉 2019~2022년 지역별 오페라공연 티켓 판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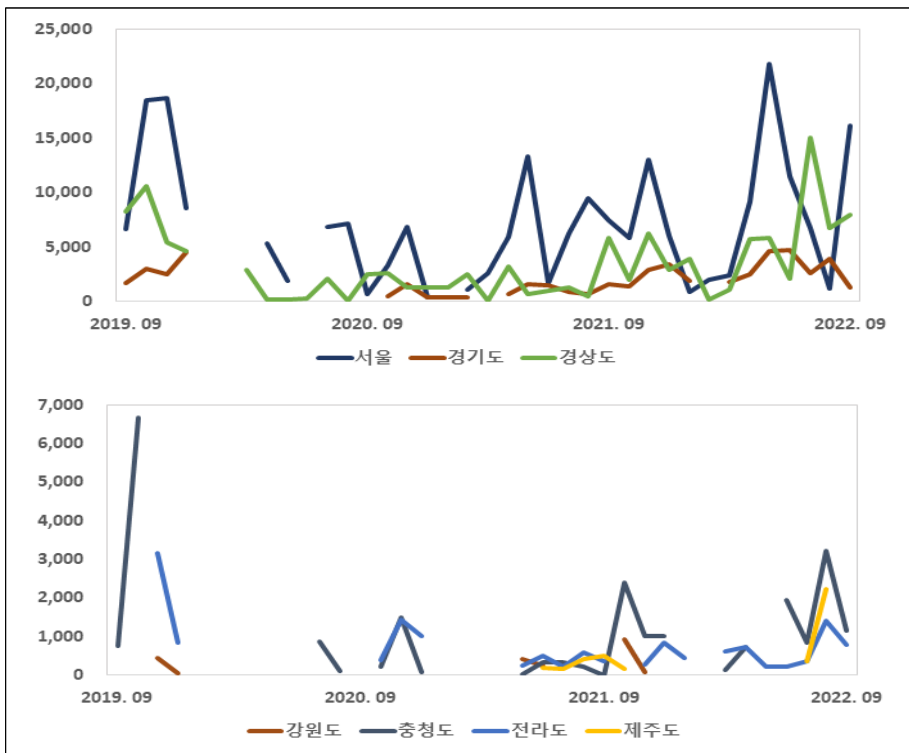
(단위: 천건)

연도	2019				2020				2021				2022		
분기	4	2	3	4	1	2	3	4	1	2	3	1	2	3	
서울	45.7	7.2	14.7	10.4	3.7	20.9	23.1	24.9	5.3	42.4	24.0				
경기	10.0	0.6	0.0	2.4	0.7	3.7	3.1	7.7	3.7	11.8	7.8				
강원	0.5	0.0	0.0	0.5	0.0	0.7	0.0	1.0	0.0	0.0	2.5				
충청	6.7	0.0	1.0	1.8	0.0	0.3	0.6	4.4	0.1	2.7	5.2				
경상	20.6	0.6	4.7	5.3	3.9	4.8	7.6	11.2	5.2	13.7	29.7				
전라	4.0	0.2	0.9	2.8	0.0	0.7	1.2	1.1	1.1	1.2	2.5				
제주	0.0	0.0	0.0	0.2	0.0	0.2	1.0	0.2	0.0	0.1	2.6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17] 2019~2022년 지역별 오페라공연 티켓 판매수

(단위: 건)





〈표 3-18〉 2019~2022년 지역별 오페라공연 티켓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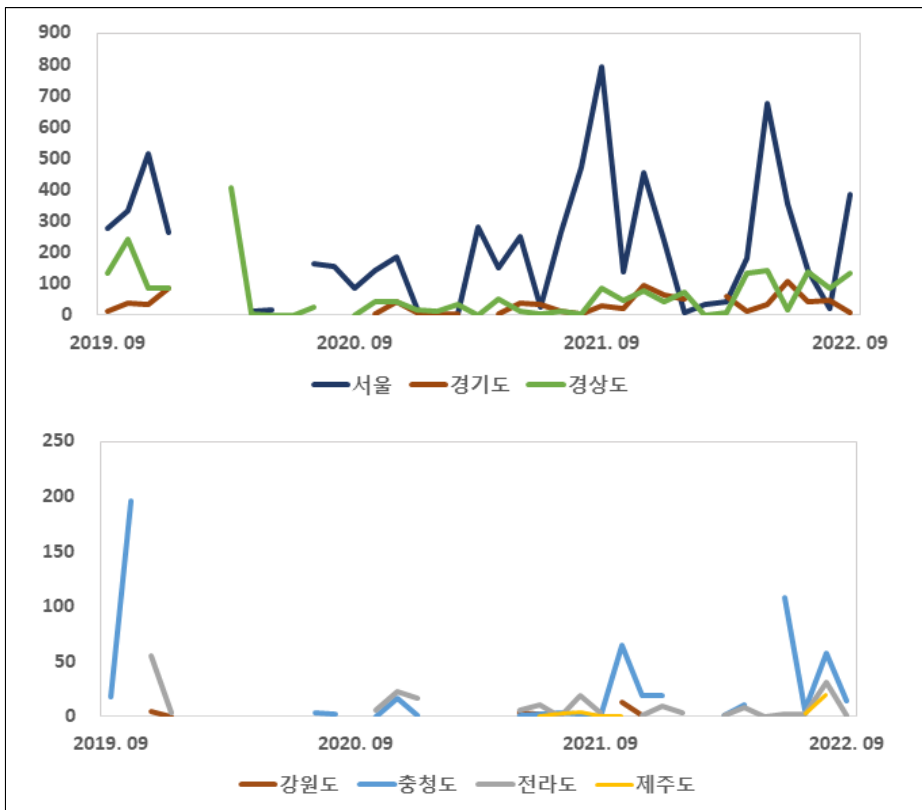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분기	4	2	3	4	1	2	3	4	1	2
서울	1,111	33	400	350	287	428	1,530	832	85	1,214	545
경기	161	2	0	53	9	76	45	179	111	155	103
강원	5	0	0	13	0	6	0	15	0	0	25
충청	198	0	6	18	0	3	6	104	1	119	77
경상	413	4	27	105	47	70	104	165	80	295	359
전라	59	4	10	46	0	16	23	11	5	11	36
제주	0	0	0	0	0	0	8	0	0	0	22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18] 2019~2022년 지역별 오페라공연 티켓 매출액

(단위: 백만원)



## 6) 전라도

- 전라도 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전년동기(19년 4분기) 대비 장르별로 평균 29% 수준으로 공연티켓 판매 수가 감소함
  - 장르별로 국악 15%, 무용 29%, 뮤지컬 11%, 복합공연 27%, 연극 12%, 오페라 70%, 클래식 공연 39% 수준으로 감소함
  - 2022년 3분기 기준 `19년 4분기 대비 공연티켓 판매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6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국악 102%, 무용 69%, 뮤지컬 78%, 복합공연 16%, 연극 49%, 오페라 63%, 클래식 74% 수준으로 나타남
  - 국악을 제외한 모든 장르가 `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 하였으며, 국악 공연의 회복수준이 높게 나타남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를 살펴보면 뮤지컬이 약 52.2만 건으로 가장 많은 공연티켓 판매수를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26.1만 건, 연극 약 19.7만 건, 국악 약 10.5만 건 등으로 나타남

〈표 3-19〉 전라도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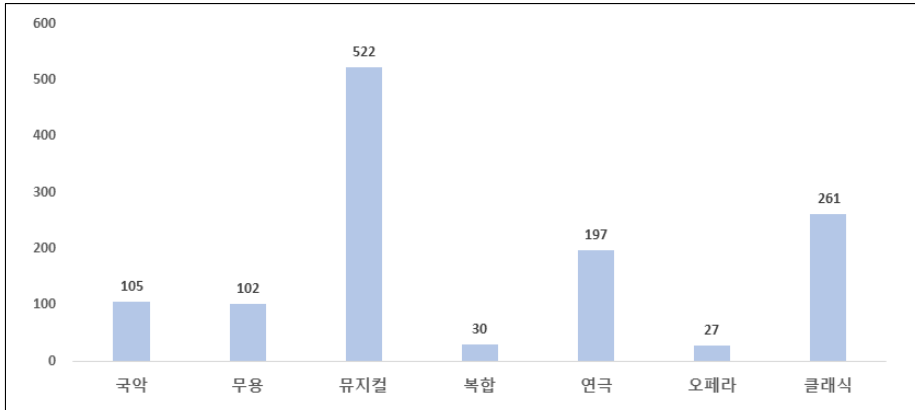
(단위: 천 건)

연도	2019	2020			2021				2022		
	4	2	3	4	1	2	3	4	1	2	3
국악	12.9	1.4	0.7	1.9	1.5	3.4	5.0	7.0	5.1	7.8	13.2
무용	16.5	0.1	0.3	4.8	0.7	2.0	4.7	9.2	0.1	9.6	11.4
뮤지컬	67.8	2.5	6.5	7.7	3.2	23.5	22.8	40.3	17.5	51.0	53.1
복합	7.9	0.2	0.0	2.1	0.2	1.8	0.9	2.5	0.4	1.8	1.3
연극	43.7	4.9	2.7	5.4	1.3	5.7	6.9	13.0	5.9	11.5	21.6
오페라	4.0	0.2	0.9	2.8	0.0	0.7	1.2	1.1	1.1	1.2	2.5
클래식	34.8	1.6	2.4	13.6	4.4	11.3	12.0	14.4	7.4	21.2	25.7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확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19] 2019년 9월 ~ 2022년 9월 전라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

(단위: 천건)



- 매출액 기준으로 전라도 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전년동기(19년 4분기)대비 장르별로 평균 38% 수준으로 공연티켓 매출이 감소
  - 장르별로 국악 17%, 무용 44%, 뮤지컬 9%, 복합공연 34%, 연극 10%, 오페라 78%, 클래식 공연 71% 수준으로 감소함
  - 2022년 3분기 기준 `19년 4분기 대비 매출 수준을 살펴보면 장르별 평균 94% 수준으로 국악 135%, 무용 178%, 뮤지컬 88%, 복합공연 24%, 연극 36%, 오페라 61%, 클래식 138% 수준으로 나타남
  - 국악, 무용, 클래식 공연은 `19년 4분기 수준을 넘어섰으나, 복합공연,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의 공연장르는 `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을 살펴보면 뮤지컬이 약 111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30.9억 원, 연극 약 19.1억 원, 무용 약 8.2억 원, 국악 5.3억 원 등으로 나타남

〈표 3-20〉 전라도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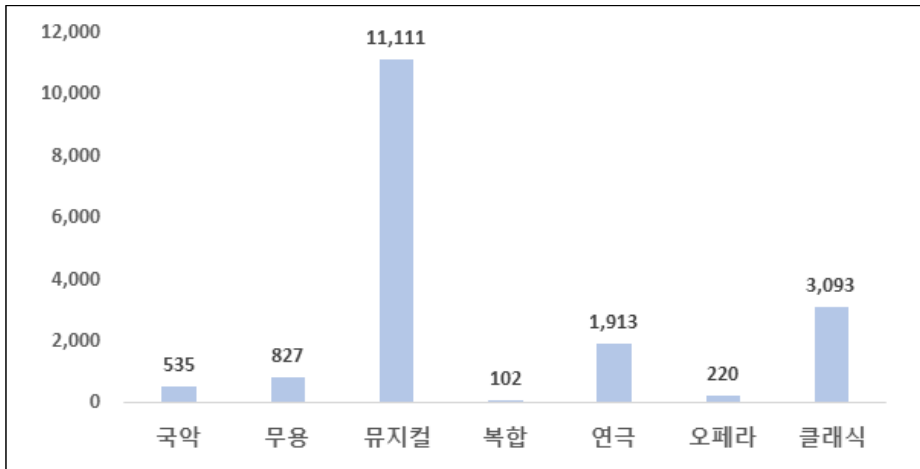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분기	4	2	3	4	1	2	3	4	1	2
국악	23	0	7	4	2	3	6	15	437	6	31
무용	156	0	2	69	10	34	83	50	0	146	277
뮤지컬	2,210	236	92	207	110	1,180	773	1,427	914	2,021	1,940
복합	38	2	0	13	1	21	6	0	5	7	9
연극	667	49	34	66	31	99	146	248	200	135	237
오페라	59	4	10	46	0	16	23	11	5	11	36
클래식	511	8	12	365	68	121	298	289	399	317	705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확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20] 2019년 9월 ~ 2022년 9월 전라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매출액

(단위: 백만원)



- 전라도 지역은 뮤지컬, 클래식, 연극이 주요 장르로 나타났으며, 국악, 무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회복속도도 빠르고 비중이 높은 장르임
- 아래 〈표 3-21〉과 [그림 3-21]은 국악장르, 〈표 3-22〉과 [그림 3-22]은 무용장르 공연티켓 판매 수로 전라도 지역의 국악공연과 무용공연이 서울, 경상도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공연티켓 판매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21〉 지역별 국악공연 티켓 판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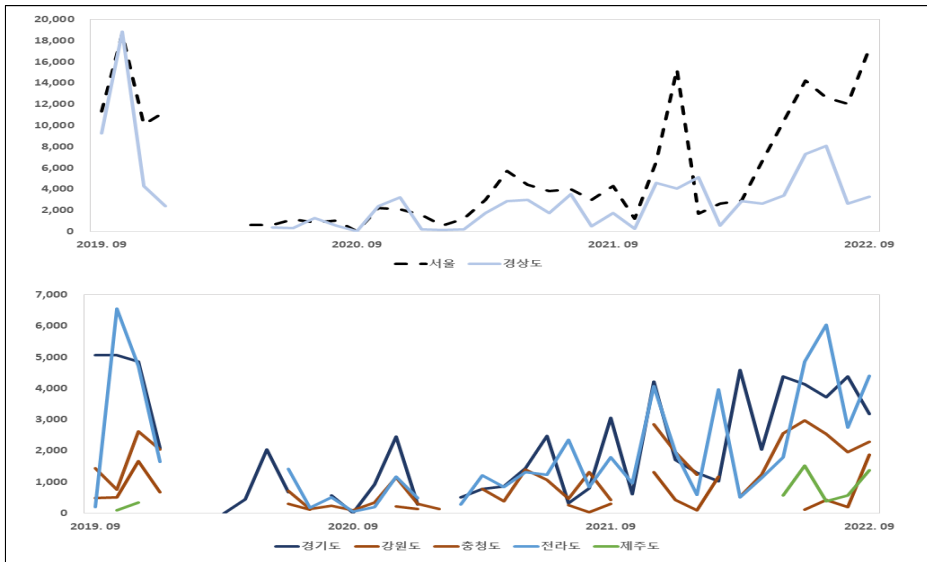
(단위: 천권)

연도	2019	2020			2021				2022		
분기	4	2	3	4	1	2	3	4	1	2	3
서울	40.0	2.4	1.9	5.9	4.8	14.0	11.3	23.1	7.2	31.3	42.0
경기	12.0	3.2	0.6	3.7	1.3	4.8	4.2	6.5	6.9	10.6	11.3
강원	2.9	0.3	0.1	0.4	0.0	0.2	0.6	1.7	1.3	0.1	2.5
충청	5.4	0.7	0.5	1.8	0.9	2.8	2.2	4.8	1.8	6.8	6.8
경상	25.6	0.7	1.9	5.9	2.1	7.6	5.7	8.9	8.6	13.4	14.0
전라	12.9	1.4	0.7	1.9	1.5	3.4	5.0	7.0	5.1	7.8	13.2
제주	0.4	0.0	0.0	0.0	0.0	0.0	0.4	0.6	0.0	2.1	2.3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21] 지역별 국악공연 티켓 판매수

(단위: 건)



〈표 3-22〉 지역별 무용공연 장르 티켓 판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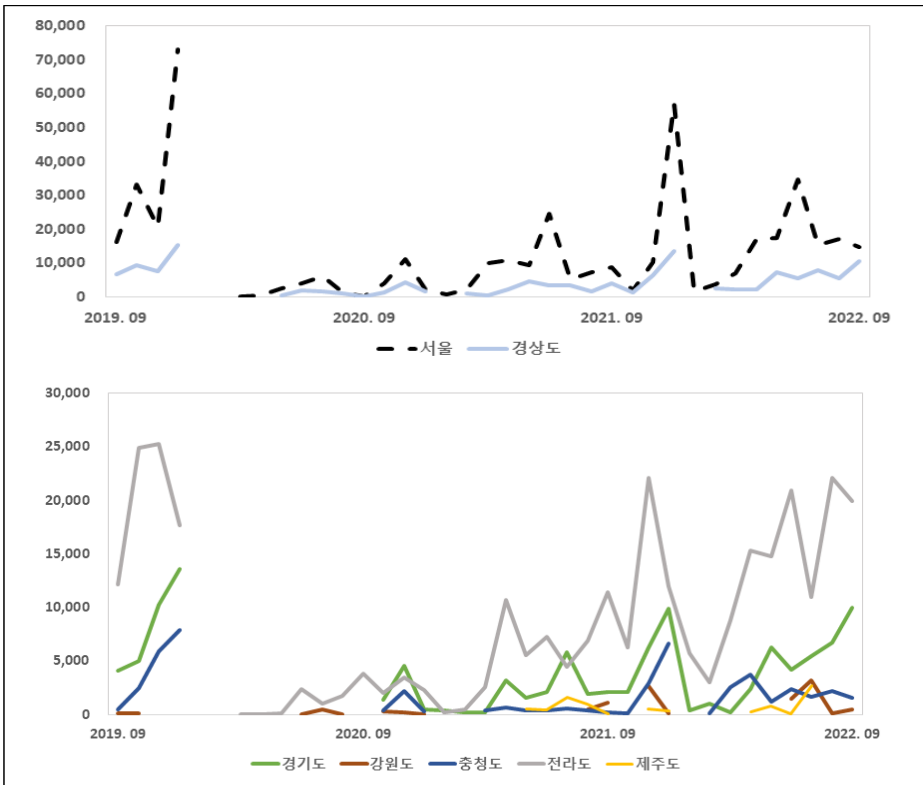
(단위: 천건)

연도	2019				2020				2021				2022		
	분기	4	2	3	4	1	2	3	4	1	2	3			
서울	127	7.1	7.8	17.1	12.9	44.9	21.2	69.1	12.2	69.4	47.1				
경기	28.8	0.0	0.0	6.3	0.8	6.9	9.8	18.3	1.6	12.8	22.2				
강원	0.8	0.0	0.5	0.5	0.0	0.2	1.6	2.7	0.0	1.6	3.8				
충청	16.2	0.4	0.0	2.9	0.4	1.4	1.1	9.6	2.6	7.3	5.3				
경상	32.5	2.3	2.7	7.4	1.4	10.2	9.1	21.0	4.7	15.1	23.9				
전라	67.8	2.5	6.5	7.7	3.2	23.5	22.8	40.3	17.5	51.0	53.1				
제주	1.1	0.0	0.0	0.2	0.0	0.9	2.6	0.9	0.0	1.0	3.0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22] 2019~2022년 지역별 무용공연 티켓 판매수

(단위: 건)



7) 제주도

- 제주 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전년동기(19년 4분기)대비 장르별로 평균 29% 수준으로 공연티켓 판매 수가 감소함
  - 장르별로 국악 0%, 무용 18%, 뮤지컬 8%, 복합공연 50%, 연극 4%, 클래식 공연 6% 수준으로 감소함
  - 2022년 3분기 기준 `19년 4분기 대비 공연티켓 판매 수준을 살펴보면 평균 545%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국악 575%, 무용 273%, 뮤지컬 18%, 복합공연 2300%, 연극 207%, 오페라 260%, 클래식 182% 수준으로 나타남
  - 뮤지컬을 제외한 모든 장르가 `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제주지역 공연 티켓 판매수가 타 지역에 비해 낮고 장르 다양성도 적어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함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를 살펴보면 뮤지컬이 약 22.5만 건으로 가장 많은 공연티켓 판매수를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이 약 4,2만 건, 연극 약 2.8만 건, 무용 약 1.8만 건 등으로 나타남

〈표 3-23〉 제주도 장르별 공연티켓 판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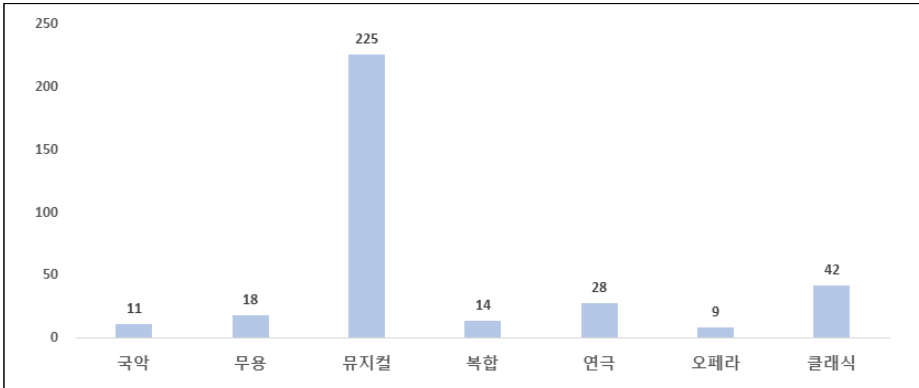
(단위: 천 건)

연도	2019	2020				2021				2022		
	4	2	3	4	1	2	3	4	1	2	3	
국악	0.4	0.0	0.0	0.0	0.0	0.0	0.4	0.6	0.0	2.1	2.3	
무용	1.1	0.0	0.0	0.2	0.0	0.9	2.6	0.9	0.0	1.0	3.0	
뮤지컬	63.4	0.1	4.0	5.1	0.1	6.6	9.4	8.3	9.6	26.7	11.3	
복합	0.2	0.0	0.0	0.1	0.0	0.1	0.2	1.6	0.0	0.1	4.6	
연극	2.7	0.1	0.1	0.1	0.0	0.7	0.1	2.0	0.8	3.2	5.6	
오페라	0.0	0.0	0.0	0.2	0.0	0.2	1.0	0.2	0.0	0.1	2.6	
클래식	3.3	0.0	0.0	0.2	0.6	0.8	2.4	2.3	1.8	5.2	6.0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확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23] 2019년 9월 ~ 2022년 9월 제주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판매수

(단위: 천권)



- 매출액 기준으로 제주도 지역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4분기 기준 전년동기(19년 4분기)대비 장르별로 평균 2% 수준으로 공연티켓 매출이 감소

  - 장르별로 뮤지컬 8%, 연극 3%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그 외 장르는 공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2022년 3분기 기준 `19년 4분기 대비 매출 수준을 살펴보면 장르별 평균 559% 수준으로 국악 167%, 무용 1,400%, 뮤지컬 33%, 연극 78%, 오페라 2,200%, 클래식 34% 수준으로 나타남
  - 앞서 공연티켓 판매수와 마찬가지로 뮤지컬을 제외하면 타 장르 매출이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매출증감에 대한 해석은 유의해야함
- 2019년 4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을 살펴보면 뮤지컬이 약 263.9억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을 보인 장르였으며, 클래식 약 1.96억 원, 연극 약 1.9억 원 등으로 나타남
- 제주도 지역은 뮤지컬이 주요 장르로 나타났으며, 다른 장르의 공연은 매출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표 3-24〉 제주도 장르별 공연티켓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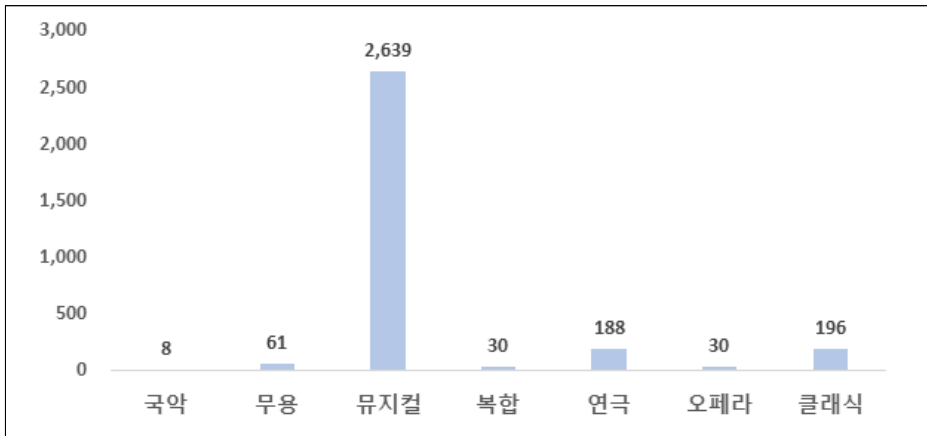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분기	1	2	3	4	1	2	3	4	1	2	3
국악	3	0	0	0	0	0	0	0	0	0	0	5
무용	2	0	0	0	0	0	5	26	0	0	0	28
뮤지컬	940	3	55	74	1	85	147	208	268	544	313	
복합	0	0	0	0	0	0	1	28	0	0	0	
연극	32	1	1	1	0	2	2	13	0	110	25	
오페라	0	0	0	0	0	0	8	0	0	0	22	
클래식	77	0	0	0	5	5	2	4	19	59	26	

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확한 장르별 통계자료 확보가 어려운 1분기는 보고에서 제외함

[그림 3-24] 2019년 9월 ~ 2022년 9월 제주도 장르별 공연티켓 총 매출액

(단위: 백만원)





지역별 공연시장 규모, 특성과 성장 가능성

제4장

## 지역 공연 시장의 성장 가능성



# 제1절 실증분석 모형

---

## 1. 분석의 배경

- 예술유통의 활성화 및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의 공연예술 서비스 생산을 지원하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역할은 한국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보고서의 앞선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를 넘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및 장르에 그러한 성과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후의 공연예술 정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공연시장이 규모의 측면에서 지역별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역의 공연시장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 또한 지역과 서울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는지와 같은 주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비교의 기준이 서울이 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공연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이 서울이기 때문임
-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우선 공연예술 소비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라이브 예술의 소비(consumption of the live arts)는 매우 시간 집약적이기 때문에 티켓가격(the ticket price) 자체보다 여가시간의 가격(the price of leisure time)이 수요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음(Throsby, 1994)
  - 공연예술은 소비를 위해 공연예술 시설이 있는 위치하는 지역으로 이동해야 함

- 따라서 공연예술의 소비를 위한 실제 비용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음
- 공연예술 소비의 실제 비용 = 티켓 가격 + 이동 비용 + 포기한 여가 시간 비용
-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서비스가 공급되는 국가에서는 서비스 가격이 상당히 낮은 특성이 있으므로 결국 티켓가격은 소비 의사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움. 결과적으로 많은 여가시간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이 서비스를 수요할 개연성이 높고, 지역별 공연시설 및 작품의 편차도 이러한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여기서 공연시설 및 작품의 지역별 편차로 인한 소비의 불균등은 향후 공연예술 정책의 방향성을 지금까지와 같은 양적 성장으로 둘 것인지, 또는 다소간의 효율성을 포기하더라도 지역별 비용의 균등화에 둘 것인지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함
- 이하에서는 상술한 문제의식 아래에서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 및 격차의 감소를 분석할 예정임
  -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은 동태적 패널 모형(dynamic panel model)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지역별 공연예술 시장의 편차 감소는 변동 계수, 지니 계수 등으로 분석할 수 있음(Dalgaard & Vastrup, 2001; Maza & Vilaverde, 2008; Young et al., 2008)
  - 다만, 공연예술 소비의 경우는 국제관광과 유사하게 거주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고 대형 공연장 역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1인당 소비 지출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 대안적으로 카드 사용 1회당 소비지출도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타인의 소비를 본인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 카드사용 1회당 소비지출 역시 경제학에서 분석하는 1인당 소비지출과는 상이점이 존재함
  - 따라서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분석 결과의 해석에서도 상술한 내용을 유념하고 해석할 필요성이 있음

## 2. 모형 설정

- 본 보고서의 지역별 공연예술 성장에 대한 모형 설정(model specification)은 다음과 같음

### 가. 소비지출 성장

- 상술한 바와 같이 소비지출 성장은 선형 동태적 패널 모형(linear dynamic panel data model)으로 분석할 수 있음

$$\log(c_{jst}) = \rho \log(c_{jst-1}) + \alpha_j + \lambda_t + \varepsilon_{jst}$$

- 여기서 하첨자  $j$ 는 시군구를,  $s$ 는 시도를,  $t$ 는 월을 의미하며,  $\alpha_j$ 는 시군구 고정효과(fix-effects),  $\lambda_t$ 는 시간효과(time-effects)를 의미함
- 그룹내 추정(within-group estimation)을 사용하여 모형을 추정함
  - 그룹내 추정으로 종속변수의 시차변수 계수( $\rho$ )를 추정하는 경우 하향 편향(downward bias)이 존재함이 알려져 있으며, 상술한 편향의 시계열이 길어짐에 따라서 사라짐(Nickell, 1981)
  - 분석 데이터의 시계열 길이는 그룹내 추정으로 동태적 패널모형을 추정하기에 관행적으로 충분하다고 간주되는 수준이기 때문에(Judson & Owen, 1999), 여기서는 그룹내 추정을 사용함

### 나. 소비지출 편차

- 지역 소비지출의 편차 축소는 변동 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와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를 통해 살펴봄
  - 참고로 지역 소비지출의 편차 감소는 소위 시그마-수렴( $\sigma$ -convergence)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변동 계수나 지니 계수로 불평등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척도인 동시에 시그마-수렴의 척도이기도 함(Dalgaard & Vastrup, 2001)
  - 본 보고서에서는 각 시점별로 변동 계수와 지니 계수를 산출하고 움직임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지역 공연예술의 소비지출 편차 변화를 관찰할 예정

## 제2절 실증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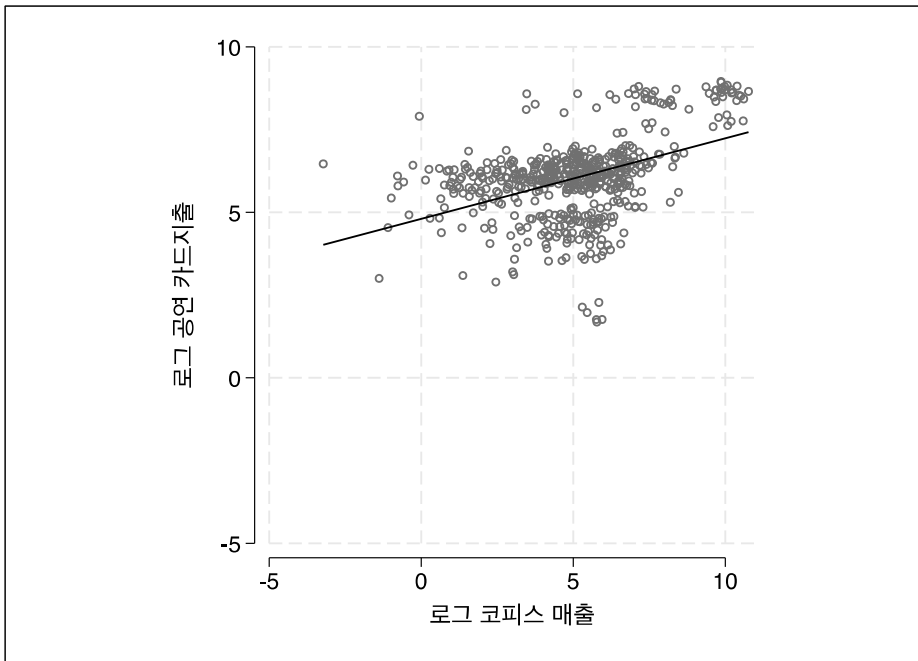
### 1. 데이터 설명

- 실증분석을 위해 신한카드사의 카드 매출전표 데이터를 시군구 수준에서 집계하여 가공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함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데이터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강제적인 수집이 시작된 시기가 2019년 6월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 성장모형을 분석하기에 시계열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기서는 카드사의 공연예술 소비지출을 대안적으로 사용함
  - 다음 [그림 4-1]은 로그 공연 카드지출과 로그 코피스 매출의 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선형 비례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카드 소비지출을 사용하여 지역 공연예술 시장의 분석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 지역은 사업체의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되었으며 시계열은 월 수준에서 집계한 패널 데이터로 가공하여 분석함
  - 데이터에 포함된 시군구는 모두 252개이며 시계열 길이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총 58개월임
  - 보다 세밀한 수준의 시계열 가공도 가능하지만, 일 수준 또는 주 수준의 집계 데이터는 달러 효과나 계절성, 주기성 등이 심하게 나타나는 관계로 추가적인 가공 또는 분석 기법의 적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월 수준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음
-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공연장 소비지출이지만, 비교를 위해서 (영화)극장 소비지출도 일부 포함하여 분석함



- 공연장과 극장 구분은 신한카드사 가맹계약 체결 시 검토한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에 따라 분류된 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로 구분
- (영화)극장은 표준산업분류의 영화관 운영업(J5914)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메가박스, CGV, 롯데시네마 등을 포함함
- 공연장은 표준산업분류의 공연시설운영업(R9011)에 해당하는 사업체로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공공운영 공연장과 LG아트센터, 대학로 공연장 등의 민간운영 공연장을 모두 포함함

[그림 4-1] 로그 공연 카드지출과 로그 코피스 매출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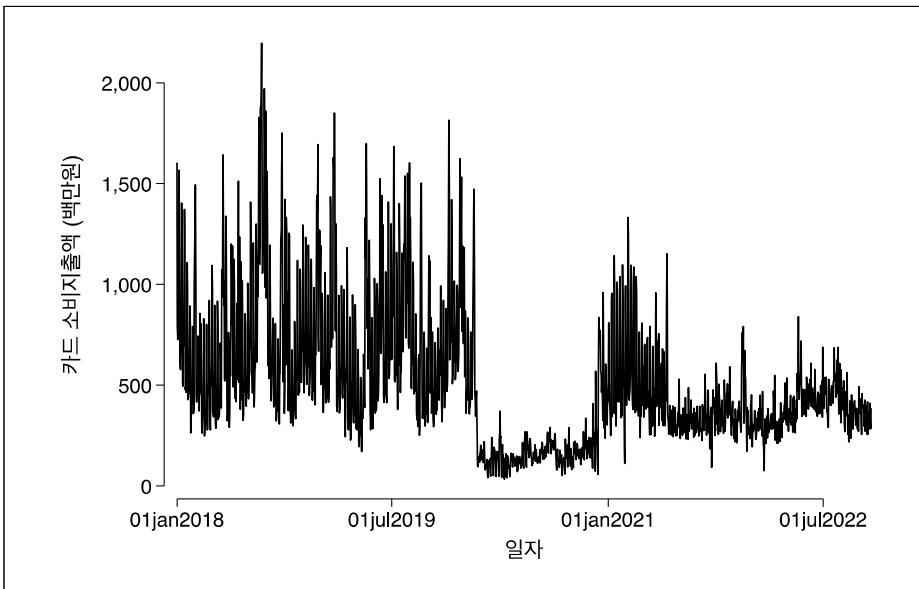
<표 4-1> 기술 통계량

구분	변수이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공연장	$\log(c_{jst})$	9,655	3.198	1.803
	$\log(c_{jst-1})$	9,392	3.126	1.770
	$\Delta\log(c_{jst})$	9,392	0.069	0.536
극장	$\log(c_{jst})$	12,859	3.746	2.204
	$\log(c_{jst-1})$	12,448	3.808	2.146
	$\Delta\log(c_{jst})$	12,448	0.008	0.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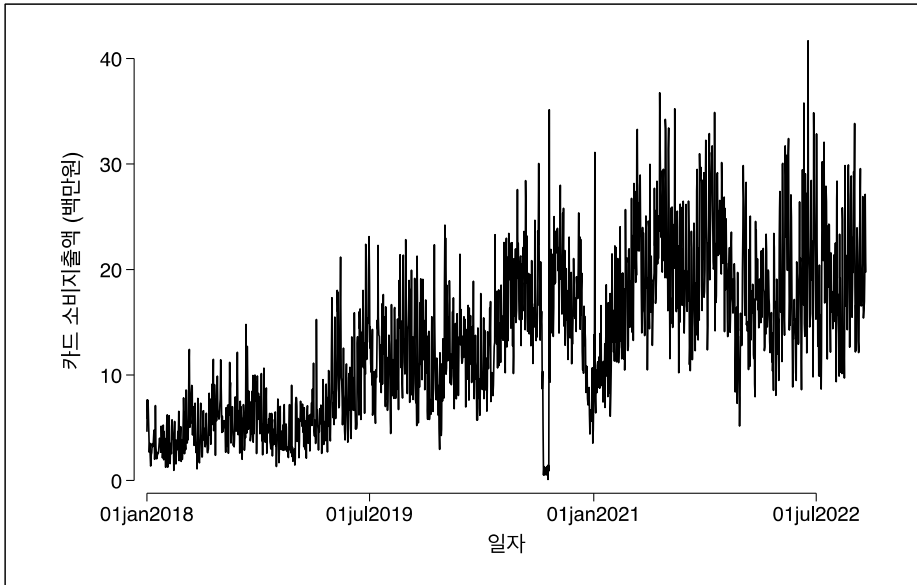
- <표 4-1>은 데이터의 기술 통계량(descriptive statistics)을 제시함
  - 일부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연장 소비지출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측치(missing observations)가 존재하여 극장에 비해 관측치가 작게 나타남
- 다음 그림은 분석 데이터에 포함된 일부 지역(서울 강남구, 부산 남구, 대구 중구)의 극장 및 공연장 일일 소비지출을 도식화함
  -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에는 대다수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모두 도식화하여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앞 장에서 살펴본 공연예술이 가장 활성화된 서울, 부산, 대구의 일부 지역만을 선정하였음

[그림 4-2] 서울 강남구 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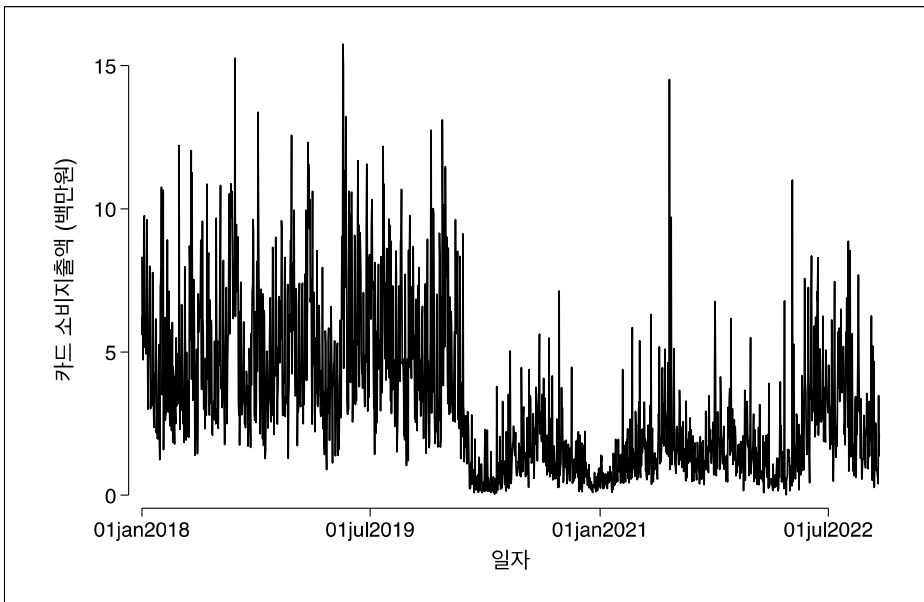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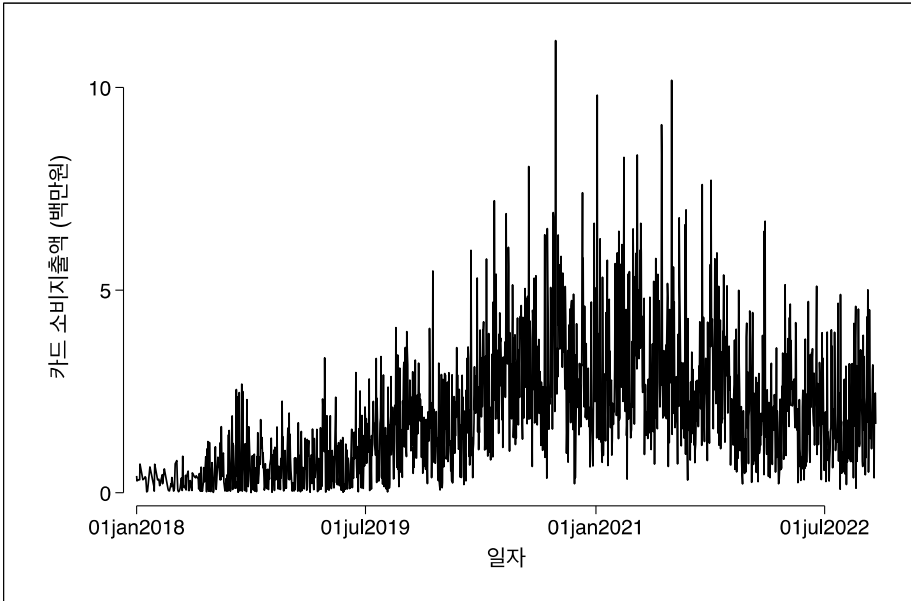
[그림 4-3] 서울 강남구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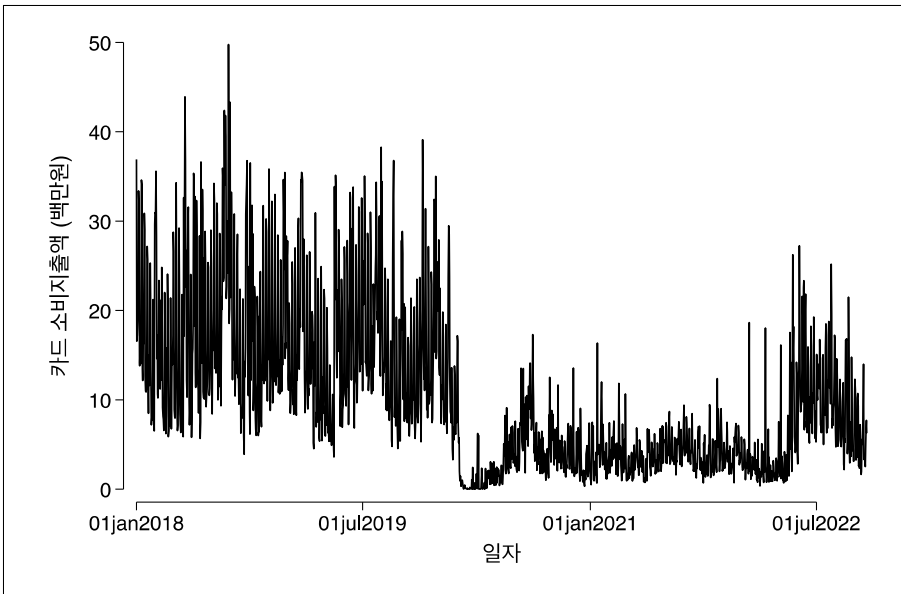
[그림 4-4] 부산 남구 극장



[그림 4-5] 부산 남구 공연장



[그림 4-6] 대구 중구 극장



- 그림의 모든 지역에서 극장 소비지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공연장 소비지출은 상대적으로 감소가 덜해 보이지만 성장 추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서울 강남구의 공연장 소비지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보다 늘어난 반면에, 부산, 대구는 이와는 다른 추세를 보인다는 점도 기술할만함

## 2. 소비지출 성장

- 전체 데이터에 대한 소비지출 성장 회귀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표 4-2〉 소비지출 성장: 전체기간 (종속변수:  $\log(c_{jst})$ )

변수	공연장 소비지출 (1)	공연장 소비지출 (2)	극장 소비지출 (3)	극장 소비지출 (4)
$\log(c_{jst-1})$	0.870 (0.008)	0.666 (0.024)	0.740 (0.013)	0.735 (0.019)
상수항	0.476 (0.026)	1.308 (0.092)	0.997 (0.048)	0.928 (0.091)
시군구 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시간 효과	-	통제	-	통제
관측치	9,392	9,392	12,448	12,448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임

- 분석결과, 과거 소비지출과의 관련성은 공연장이 더 높지만 소비지출의 계절성 역시 공연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월 더미 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에서 추정된 계수의 크기는 공연장이 더 크며, 반대로 월 더미 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은 극장의 계수가 더 크게 나타남
- 다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2020년 이전의 데이터만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여기서는 시간효과의 통제와 관계없이 공연장의 소비지출을 사용한 회귀모형에서 계수의 크기가 모두 크게 나타남

〈표 4-3〉 소비지출 성장: 2020년 이전 (종속변수:  $\log(c_{jst})$ )

변수	공연장 소비지출 (1)	공연장 소비지출 (2)	극장 소비지출 (3)	극장 소비지출 (4)
$\log(c_{jst-1})$	0.806 (0.016)	0.617 (0.027)	0.583 (0.047)	0.595 (0.049)
상수항	0.529 (0.032)	1.243 (0.09)	1.703 (0.19)	1.782 (0.209)
시군구 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시 간 효 과	-	통제	-	통제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임

- 2021년 이후의 데이터만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전과 달리 여기서는 공연장 소비지출을 분석한 (1)열과 (2)열의 추정된 계수가 (3)열 및 (4)열에 비해 모두 작게 나타남
-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전후로 공연예술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현재의 공연예술 시장상황은 상이함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추정된 계수의 크기가 상당히 작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공연예술 소비보다는 일시적인 이벤트성 소비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음<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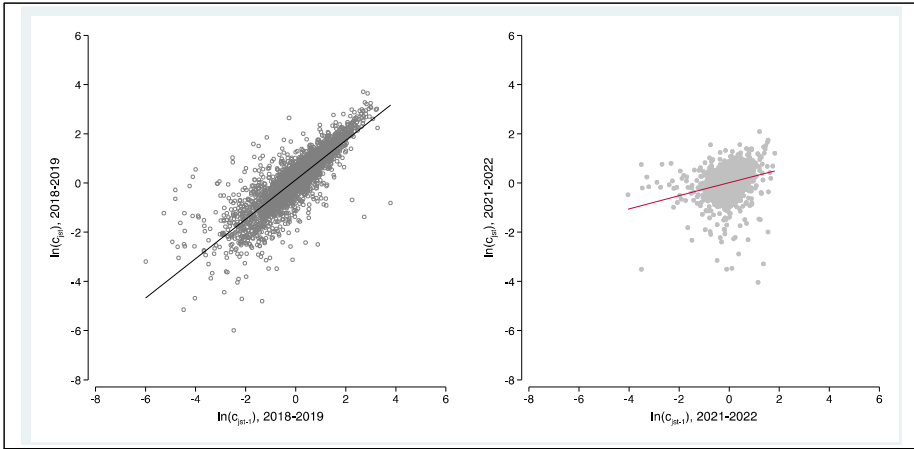
〈표 4-4〉 소비지출 성장: 2021년 이후종속변수:  $\log(c_{jst})$

변수	공연장 소비지출 (1)	공연장 소비지출 (2)	극장 소비지출 (3)	극장 소비지출 (4)
$\log(c_{jst-1})$	0.292 (0.026)	0.281 (0.033)	0.659 (0.018)	0.533 (0.044)
상수항	2.583 (0.094)	2.568 (0.126)	1.311 (0.067)	1.759 (0.195)
시군구 효과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시 간 효 과	-	통제	-	통제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임

3) 이벤트성 소비란 특정 공연이나 특정한 연기자에 의존하는 형태의 공연에 의해 발생하는 소비를 의미함

[그림 4-7] 소비지출 성장의 비교: 2018-2019년(좌측) 대비 2021-2022년(우측)



-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4-7]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전에는 거의 과거의 공연예술 소비지출에 비례하는 수준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었음
  -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에는 선형관계의 기울기가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4-7]은 그룹내 변환(within-group estimation)을 실시하고 작성됨

### 3. 소비지출 성장: 지역별

- 여기서는 지역별로 소비지출 성장을 추정한 결과를 제시함
  - 단, 세종과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공연예술 소비지출을 분석하기에 관측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앞에서 제시한 전체 추정결과와 유사하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과거 로그소비지출 ( $\log(c_{jst})$ )의 계수 값이 1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정되었음
  -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계수가 작게 추정되었으며, 대도시권이 아니거나 수도권과의 거리가 상당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을 전후로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비수도권·비

대도시권 지역에서 못한 공연예술 소비지출이 지속적이지 못하게 일어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여기서의 소비지출 성장은 각 지역 내에서의 소비지출 성장이므로 앞서 제시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도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의 소비지출 성장의 패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특기할만함
  - 이는 서울과 비서울지역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내에서도 공연 시설 및 작품 등에서 상당한 수준의 격차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음



〈표 4-5〉 지역별 소비지출 성장: 전체기간

지역	(1)	(2)
서울	0.945 (0.008)	0.936 (0.007)
부산	0.898 (0.019)	0.876 (0.024)
대구	0.925 (0.023)	0.913 (0.031)
인천	0.893 (0.033)	0.859 (0.054)
광주	0.950 (0.007)	0.950 (0.009)
대전	0.958 (0.006)	0.956 (0.006)
울산	0.906 (0.028)	0.899 (0.030)
경기	0.926 (0.007)	0.904 (0.007)
강원	0.930 (0.015)	0.891 (0.029)
충북	0.922 (0.022)	0.884 (0.027)
충남	0.893 (0.043)	0.878 (0.062)
전북	0.917 (0.015)	0.827 (0.034)
전남	0.869 (0.025)	0.533 (0.088)
경북	0.893 (0.023)	0.702 (0.079)
경남	0.864 (0.028)	0.788 (0.052)
시군구 효과	통제	통제
시간 효과	-	통제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며 상수항 및 더미 변수의 보고는 생략되어 있고, 시간 효과는 데이터의 모든 시기에 대하여 작성한 더미 변수를 포함하여 통제하였음

〈표 4-6〉 지역별 소비지출 성장: 2020년 이전

지역	(1)	(2)
서울	0.872 (0.018)	0.898 (0.021)
부산	0.75 (0.062)	0.753 (0.061)
대구	0.928 (0.053)	0.955 (0.056)
인천	0.853 (0.022)	0.876 (0.017)
광주	0.864 (0.052)	0.890 (0.051)
대전	0.951 (0.046)	0.958 (0.043)
울산	0.667 (0.085)	0.645 (0.130)
경기	0.836 (0.02)	0.845 (0.021)
강원	0.914 (0.021)	0.922 (0.009)
충북	0.833 (0.043)	0.873 (0.047)
충남	0.852 (0.131)	0.864 (0.130)
전북	0.779 (0.031)	0.758 (0.039)
전남	0.326 (0.138)	0.287 (0.118)
경북	0.484 (0.195)	0.475 (0.200)
경남	0.567 (0.105)	0.530 (0.118)
시군구 효과	통제	통제
시간 효과	-	통제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며 상수항 및 더미 변수의 보고는 생략되어 있고, 시간 효과는 데이터의 모든 시기에 대하여 작성한 더미 변수를 포함하여 통제하였음

〈표 4-7〉 지역별 소비지출 성장: 2021년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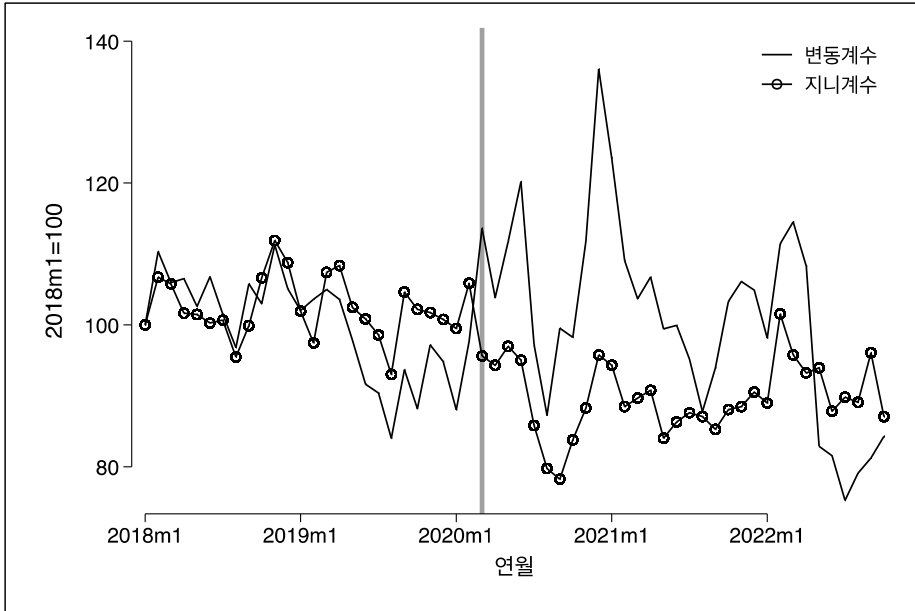
지역	(1)	(2)
서울	0.479 (0.025)	0.584 (0.035)
부산	0.397 (0.055)	0.594 (0.068)
대구	0.479 (0.077)	0.653 (0.049)
인천	0.520 (0.039)	0.700 (0.043)
광주	0.132 (0.033)	0.417 (0.203)
대전	0.267 (0.088)	0.633 (0.079)
울산	0.372 (0.096)	0.547 (0.111)
경기	0.386 (0.027)	0.434 (0.062)
강원	0.319 (0.065)	0.395 (0.080)
충북	0.472 (0.048)	0.576 (0.047)
충남	0.296 (0.081)	0.324 (0.102)
전북	0.146 (0.050)	0.291 (0.052)
전남	0.177 (0.101)	0.193 (0.107)
경북	0.228 (0.073)	0.224 (0.064)
경남	0.217 (0.093)	0.254 (0.125)
시군구 효과	통제	통제
시간 효과	-	통제

주: 괄호 안은 시군구 수준에서 군집화한 표준 오차이며 상수항 및 더미 변수의 보고는 생략되어 있고, 시간 효과는 데이터의 모든 시기에 대하여 작성한 더미 변수를 포함하여 통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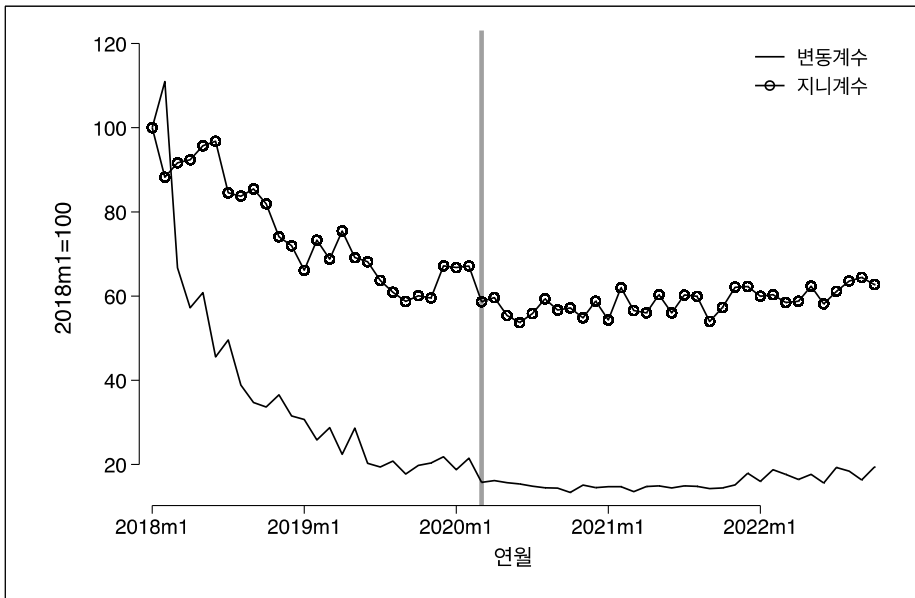
### 3.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

- 여기서는 변동 계수와 지니 계수를 사용하여 지역별 공연예술 소비지출의 변화를 살펴봄
  - 용이한 비교를 위해서 두 계수 모두 2018년 1월을 100으로 표준화하였음
  - 그림에서 회색 음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2020년 3월을 의미함
- 그림은 우리나라의 지역별 공연예술 소비지출 편차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에는 빠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 소비지출 편차의 감소는 변동 계수, 지니 계수 모두에서 확연하게 나타남
  - 한편 극장의 경우에는 과거 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로는 오히려 편차의 변동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공연예술 소비지출 편차의 감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로는 관찰하기 어려우며 최근 들어서는 소비지출 편차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음
- 제시된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소비지출 성장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후로 공연예술 시장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결과는 공연예술 소비지출이 과거와는 다른 경로로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서울 및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공연예술 소비지출이 앞으로 상이한 형태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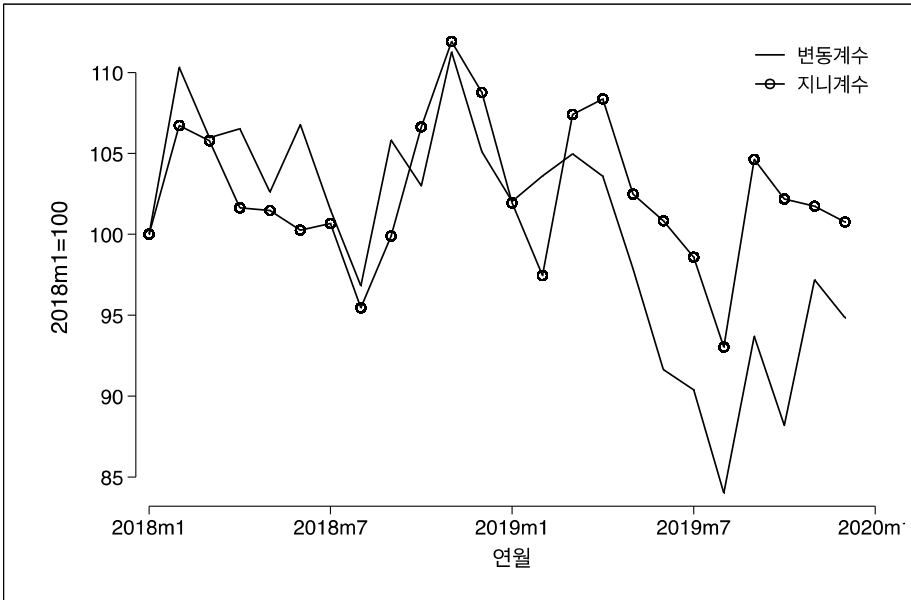
[그림 4-8]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 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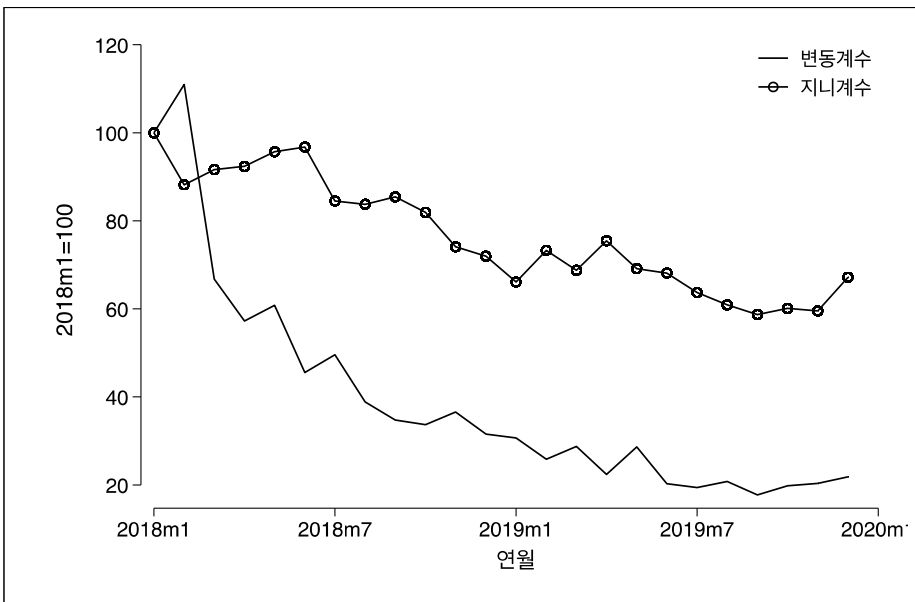
[그림 4-9]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 공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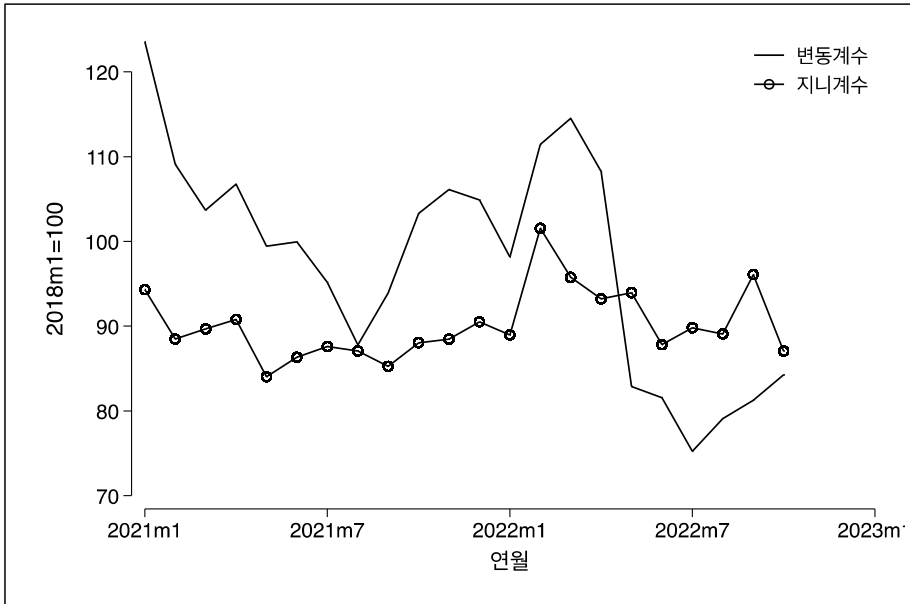
[그림 4-10]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 2020년 이전 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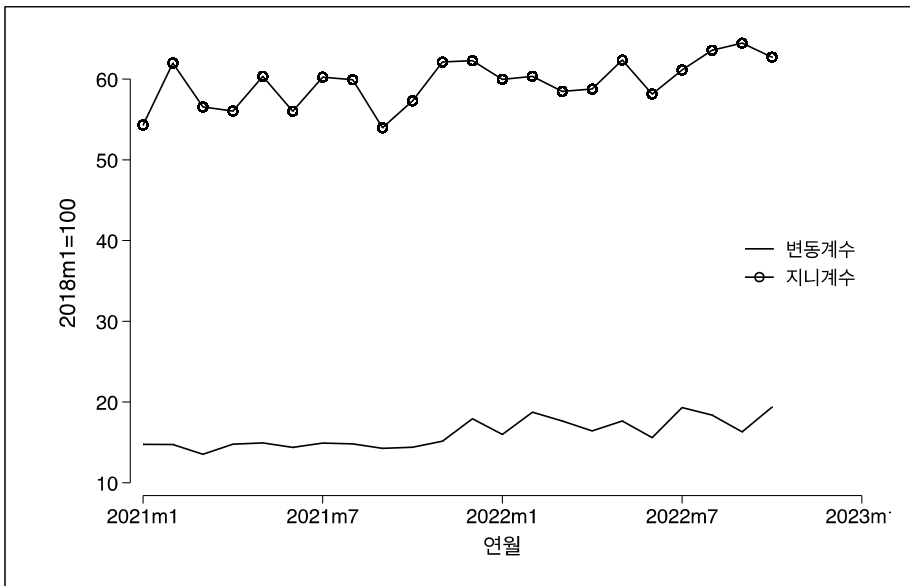
[그림 4-11]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 2020년 이전, 공연장



[그림 4-12]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 2021년 이후, 극장



[그림 4-13]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 2021년 이후, 공연장







지역별 공연시장 규모, 특성과 성장 가능성

제5장

결론



## 제1절 결과요약 및 시사점

---

-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설립된 2006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공연예술 시장은 매년 1-8% 수준으로 크게 성장하여 왔음
- 2010년부터는 공연시장의 티켓 판매규모가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발 직전인 2019년에는 티켓 판매액이 약 3,900억원으로 추정되었음
  - 2020년 판매액은 직전 연도에 비해서 55.8% 감소한 약 1,721억원을 기록함
- 또한 2022년의 티켓 판매액은 이미 10월 시점에서 약 4,213억원에 달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과거와 비교하여 1,000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다만 공연예술 판매액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임
  - 이는 티켓 가격이 높은 유료 공연예술의 대다수가 서울에서 공연함에 기인함
- 2022년 기준으로 내한공연 건수는 전체 공연시장의 약 1.6%에 불과하지만 판매액으로는 8.5%를 차지하며, 반면에 축제에서 총 1,211건이 공연되어 전체에서 9.5%를 차지하고 있으나 티켓 판매액은 전체의 1.6% 수준임
- (지역 공연예술 시장)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별 공연 티켓 판매수를 살펴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모든 지역에서 수요 감소가 나타났으며, 2021년 2분기부터 공연시장 회복세를 보였으나 지역 및 장르별로 차이가 나타남
- 2021년 2분기 전체 공연티켓 판매수는 약 171만여 권으로 이 기간부터 공연시장에서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였으나, 일부 장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전체 티켓판매수는 약 375만 여건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이 약 253만여 건으로 가장 많은 티켓판매수를 보였으며, 대구가 약 15만여건, 경기도가 약 34만여건으로 나타남
  - 티켓 판매수가 가장 작은 지역은 제주로 약 3만 5천 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작은 지역은 약 6만 7천 건을 기록한 강원이었음
  - 그 다음으로 전라, 충청 지역 순으로 공연티켓 판매수가 작게 나타났음
- 분석기간 동안 서울 지역은 우리나라 공연 티켓 판매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연예술 시장의 주요 공연 장르는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순으로 나타남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상 지역에서 복합장르 및 오페라 장르의 공연티켓 예매건수나 매출액이 높게 나타났고, 전라 지역은 국악, 무용 장르의 공연티켓 예매건수가 높게 나타남
- 강원도 지역은 축제공연 예매건수나 매출액이 다른 장르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 축제와 관련한 공연예술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지역 공연시장 성장) 신한카드사의 카드 매출전표 데이터를 시군구 수준에서 집계하여 가공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함
- 분석기간 전체적으로는 공연예술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이후로 공연예술 소비지출 성장이 둔화되었음
  - 특히 서울 지역 보다는 비서울 지역 공연예술 시장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크게 둔화되었다고 나타남
- 지역별 공연예술 소비지출의 편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 지역별 소비지출 회복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반대로 영화의 경우는 지역별 소비지출 편차가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영화 소비지출의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편차도 감소하는 현상으로 보임
- 비서울 지역의 공연예술 소비지출은 서울 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으나, 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로는 비서울 지역의 서울 따라잡기 효과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과거에는 높은 성장을 보여주었던 비서울 지역의 공연예술 시장은 현재 성장성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로 보이며 과거와 같은 수준의 성장으로 회귀할지는 불분명함
  - 다만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소비지출은 1인당 소비지출이 아니므로, 분석결과가 비서울 지역 거주자의 공연예술 소비와 서울 지역 거주자의 공연예술 소비 격차가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성장성 저하의 원인은 단순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만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해당 지역의 인구 고령화, 소득 감소 등의 영향도 반영되어 있을 수 있음
  - 즉, 지역 공연시장의 성장이 과거에 비해 둔화되었다는 점은 분석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 분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요함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역대 최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전에 관찰되던 결과와는 달리, 시장의 성과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별 소비지출의 불평등 증가가 관찰되고 있음
  - 공연장 소재지역과 공연예술 소비지역은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비서울 지역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서울 지역과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일은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지역 공연예술 시장을 육성하고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격차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임
  - 현재 공연예술 지원정책은 크게 정부주도형 서비스 공급 및 소비자에 대한 소득 보조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우수한 공연시설 다수는 수요처라는 논리에 의해 소위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티켓 가격보다 여가시간 가격이 소비에 중요하다는 라이브 예술의 특성을 정책적으로 잘 반영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음
  - 즉,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는 공연예술 소비를 위해 더 많은 티켓의 비용(이동 비용, 포기한 시간비용 등)을 지불하여야 함
  - 민간 공연시설은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입지를 선정하

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공공 공연시설까지 동일한 논리로 인구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경우, 비서울 지역 거주자는 서울과 동일한 수준의 공연시설 및 출연진의 소비를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구조가 지속될 것임
- 지역의 인구, 특히 젊은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공공 공연시설 공급이 타당할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인구에 비례하여 시설규모를 나누는 형태의 기계적인 투자보다는 우수한 시설에의 접근 기회비용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
- 다만 본 분석에서는 공연예술 소비가 아니라 소비지출을 사용하여 무료 공연이 많은 비서울 지역에서의 공연예술 소비를 과소 측정하였을 개연성도 있음
  - 공연예술 소비를 위한 지역간 이동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1인당 소비지출을 사용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분석의 한계임
- 후속 연구로 지역 간 소비의 수렴과 소득의 수렴을 비교하거나, 인구 고령화와 예술시장의 성장 또는 소비의 수렴을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지역 공연예술 시장의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이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2021). 공연예술조사.
- Dalgaard, C.-J., & Vastrup, J. (2001). On the measurement of  $\sigma$ -convergence. *Economics Letters*, 70, 283—287.
- Judson, R. A. and Owen, A. L. (1999). Estimating dynamic panel data models: a guide for macroeconomists. *Economics letters*, 65(1), 9-15.
- Nickell, S. (1981). Biases in dynamic models with fixed effects. *Econometrica*, 49, 1417-1426.
- Throsby, D. (1994).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the arts: A view of cultural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2(1), 1-29.
- Young, A. T., Higgins, M. J., & Levy, D. (2008). Sigma convergence versus beta convergence: Evidence from US county-level data.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40(5), 1083-1093.





---

# ABSTRACT

## **Performing Arts Market by Regions in South Korea: Size, Characteristics, and Growth Potential**

Hyoungjong Kim, Sangkyu Lee, Suyoung Yoon, Dawoon Lee, and In-hye Jeong

This report deals with regional performing arts in South Korea. We use the information from Korea Performing Arts Box Office Information System (hereinafter, KOPIS) for this purpose. The data shows that the Korean performing arts market has rapidly boosted after establishing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Furthermore, it seems that the market will record the highest sales ever in the year 2022. The growth of this market, however, is concentrated specifically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which could be a limitation of such growth. Also, the Korean performing arts market is characterized by a high overall dependence on musicals. Meanwhile, other preferred performing arts genres vary slightly between regions; for example, the Gyeongsang regions prefer operas, while the Jeolla regions prefer traditional Korean music. Due to the limitation of time series information of KOPIS, the report estimated growth potential by using card transaction data.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d that COVID-19 might lower non-Seoul regions' growth potential, and thus policy responses for activating regional performing arts are also discussed.

### **Keywords**

Card expenditure, Convergence, Consumption growth, Live arts, Performing arts



## 집필내역

---

### 연구책임

김형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데이터분석팀 팀장: 제1장, 제4장, 제5장, 연구총괄

이상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데이터분석팀 차석전문원: 제4장, 제5장

### 연구진

윤수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데이터분석팀 연구원: 제3장, 제5장

정인혜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지원팀 팀장: 제2장, 제3장 제1절

이다운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지원팀 주임: 제2장, 제3장 제1절

## 지역별 공연시장 규모, 특성과 성장 가능성

---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3년 3월 8일

발행일 2023년 3월 8일

인쇄인 더크리P&B(주)

I S B N 978-89-6035-968-0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2.e49>